

제329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12월5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인성교육진흥법안(계속)
-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 60.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고발의 건 5
 - 1.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송영근·김을동·김장실·윤재욱·유일호·주영순·주호영·신성범·김희선·이한성·길정우·이에리사·이중훈·유재중·염동열·안홍준·신의진·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6
 - 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병석·김상희·유인태·박혜자·이개호·김광진·정진후·배재정·유은혜·김기식·홍종학·남인순·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7
 - 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변재일·김춘진·정청래·이낙연·배기운·서영교·김우남·박남춘·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7
 -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7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7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배기운·전순옥·강창일·박남춘·장하나·정성호·이원욱·이윤석·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7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염동열·정희수·이명수·손인춘·권성동·김태흠·이인제·이우현·김성찬·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7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윤·유성엽·도종환·김동철·배재정·김광진·박지원·정성호·김성곤·부좌현·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7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영석·주호영·강은희·홍지만·김한표·서상기·김세연·박윤옥·김종태·안홍준·김영우·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7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유기홍·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이원욱·최원식·유성엽·유은혜·오영식·홍영표·부좌현·오제세·장하나·이목희·박홍근·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7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상희·김윤덕·강기정·도종환·안민석·은수미·이찬열·부좌현·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7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미경·유기홍·유성엽·김광진·정성호·양승조·김윤덕·도종환·박홍근·윤호중·부좌현·한명숙·한정애·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7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박홍근·배재정·김상희·정세균·유기홍·박혜자·윤관석·안민석·신학용·이학영·홍익표·진성준·신경민·김용익·김태년·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계속) 7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도종환·박혜자·김상희·김윤덕·배재정·정세균·박홍근·윤관석·정진후·우원식·김태년·안민석·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7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유기홍·박혜자·안민석·배재정·박홍근·박원석·서기호·도종환·심상정·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7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김상희·유기홍·도종환·이찬열·윤관석·김태년·이언주·김광진·정진후·김재윤·강창일·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7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박창식·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종범·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7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윤재옥·장윤석·이상일·최봉홍·김상민·이강후·박성호·박윤옥·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7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장하나·김광진·김재윤·김상희·박민수·박주선·배재정·백재현·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8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전병헌·변재일·박홍근·김성주·안민석·김현미·안규백·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8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박명재·안홍준·류지영·주호영·박창식·윤명희·이에리사·전하진·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계속) 8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훈·장윤석·이채익·강은희·주호영·심학봉·김태흠·서용교·김을동·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8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김성곤·심상정·정진후·박원석·서기호·김현미·전순옥·홍영표·강동원·이목희·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8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나성린·서상기·홍철호·김장실·주호영·배덕광·양승조·강은희·류지영·황인자·이종훈·윤상현·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8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태원·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8
27.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현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8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김성주 · 유기홍 · 배재정 · 박혜자 · 박주선 · 강기정 · 진성준 · 김관영 · 장병완 · 김태년 · 김재윤 · 정진후 · 진선미 · 안규백 · 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계속)	8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후덕 · 신학용 · 추미애 · 배재정 · 이상직 · 김성곤 · 이목희 · 김승남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8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상일 · 윤명희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신경림 · 홍철호 · 양승조 · 정병국 · 유승우 · 이한성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계속)	8
31.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8
3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8
33.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8
3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8
3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8
36.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8
3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언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8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8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9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안민석 · 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9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9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언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9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배재정 · 이찬열 · 장하나 · 황주홍 · 이상직 · 김성곤 · 전순옥 · 홍의락 · 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9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46.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 · 김성찬 · 안홍준 · 손인춘 · 유승우 · 이재오 · 김장실 ·	

이강후 · 여상규 · 정병국 · 이채익 · 이현재 · 김성곤 · 김을동 · 윤관석 · 이한구 · 김춘진 · 백재현 · 임내현 · 안효대 · 장윤석 · 심윤조 · 함진규 · 정문현 · 서용교 · 김태호 · 김종태 · 길정우 · 이완영 · 이자스민 · 성완중 · 주영순 · 신학용 · 문정림 · 나성린 · 이학재 · 송광호 · 박인숙 · 조명철 · 한기호 · 황진하 · 이찬열 · 최원식 · 윤후덕 · 김정록 · 원유철 · 이명수 · 유성엽 · 김영우 · 이만우 · 박민식 · 서기호 · 이이재 · 김희국 · 안덕수 · 유기홍 · 박창식 · 김현숙 · 강은희 · 김희정 · 송영근 · 류지영 · 윤명희 · 조원진 · 김상민 · 정수성 · 조경태 · 김정훈 · 유승민 · 신경림 · 오병윤 · 이종훈 · 김학용 · 정세균 · 김재경 · 서상기 · 유재중 · 김상훈 · 박성호 · 이진복 · 한선교 · 윤영석 · 이에리사 · 주호영 · 정우택 · 정진후 · 박윤옥 · 박주선 · 이균현 · 진성준 · 김동철 · 원혜영 · 홍지만 · 김광진 · 이우현 · 권성동 · 강석호 · 한명숙 · 박대동 · 양승조 · 문대성 · 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9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세연 · 김장실 · 김태원 · 박인숙 · 손인춘 · 송영근 · 심재철 · 안홍준 · 李宰榮 · 정희수 · 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9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김우남 · 김춘진 · 장하나 · 김제남 · 윤후덕 · 이미경 · 이윤석 · 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9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홍근 · 배기운 · 강동원 · 최민희 · 김춘진 · 이원욱 · 배재정 · 도종환 · 김관영 · 윤관석 · 김성주 · 원혜영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9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김성찬 · 이현재 · 이한성 · 주영순 · 강기윤 · 신경림 · 김동완 · 심윤조 · 최봉홍 · 윤재옥 · 박덕흠 의원 발의) 9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유은혜 · 홍의락 · 박홍근 · 김승남 · 정진후 · 김상희 · 배재정 · 배기운 · 도종환 · 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9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이만우 · 오제세 · 조원진 · 김종태 · 조명철 · 박인숙 · 길정우 · 이학재 · 김상훈 의원 발의)(계속) 9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9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 · 진선미 · 유성엽 · 장하나 · 안민석 · 이찬열 · 김승남 · 남인순 · 정성호 · 박남춘 · 김재윤 · 김광진 · 전해철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9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김태년 · 박주선 · 안민석 · 박홍근 · 배재정 · 박혜자 · 유기홍 · 윤관석 · 정진후 · 도종환 · 유인태 · 조정식 · 유은혜 · 안홍준 · 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9

5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 정갑윤 · 이만우 · 강석훈 · 이현재 · 홍지만 · 김정록 · 김태환 · 유재중 · 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9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배기운 · 부좌현 · 이만우 · 정호준 · 전해철 · 김재윤 · 전순옥 · 장하나 · 민홍철 · 이상직 · 김광진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0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 현안질의 14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한 형사고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0.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고발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설훈 먼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문기)에 대한 형사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10월 27일 교육부 소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증인 불출석 죄를 적용하여 형사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10월 8일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가 당시 또 한 번에 걸쳐서 증인 출석 요구를 10월 27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이어 출석하지 않은,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김문기 증인에 대한 고발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다만, 당시 우리가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전 이사장이었던 김길남 씨에 대해서도 분명 동시에 동행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아시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시 출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만 증인 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형사고발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법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김문기 씨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취하게 되었는지, 왜 김길남 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동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훈 신성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박홍근 위원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목도했다시피 두 분 모두 다, 특히 한 분은 중국으로 두 번에 걸쳐서 도피성 의혹이 있어 보이는 그런 출국을 하셨고, 한 분은 또 치주염,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몇몇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해 보니까 불출석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야당 김태년 간사께서 두 분의 형사고발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간사 입장에서 부자를 둘 다,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부자 둘 다 형사고발해서, 그것이 징역형은 아닐지언정 벌금형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부친인 김문기 씨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에 제가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야당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설훈 그러면 증인 김문기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형사고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홍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문기 씨 혼자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설훈 예, 혼자만입니다.

○안홍준 위원 우리 여당 간사께서 그렇게 합의를 해 준 것 같지만 국회의 위상을 봐서 저는 두 분 다 고발하는 것이 맞고,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박홍근 위원 예, 맞습니다.

○안홍준 위원 아니, 이것은 치주염을 가지고, 또 자기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까지 동행명령조차도 같이 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사를 한번 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이게 부자가 동일 사건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부자 중 한쪽만 처벌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한 것 같고.

김길남의 행태를 보면 꽤 씹하지요. 상식에 맞지도 않고 꽤 씹하지만, 동일 사안에 부자가 함께 연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문기만 말하자면 책임 추궁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홍준 위원 박홍근 위원님도 이의 없으니까? 소수의견이라도 남겨야지요.

○박홍근 위원 예,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 다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송영근·김을동·김장실·윤재옥·유일호·주영순·주호영·신성범·김희선·이한성·길정우·이에리사·이종훈·유재중·염동열·안홍준·신의진·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계속)
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 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병석·김상희·유인태·박혜자·이개호·김광진·정진후·배재정·유은혜·김기식·홍종학·남인순·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3.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변재일·김춘진·정청래·이낙연·배기운·서영교·김우남·박남춘·조정태 의원 발의)(계속)
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배기운·전순옥·강창일·박남춘·장하나·정성호·이원욱·이윤석·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 의원 대표발의)(성완중·염동열·정희수·이명수·손인춘·권성동·김태흠·이인제·이우현·김성찬·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재윤·유성엽·도종환·김동철·배재정·김광진·박지원·정성호·김성곤·부좌현·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윤영석·주호영·강은희·홍지만·김한표·서상기·김세연·박윤옥·김종태·안홍준·김영우·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유기홍·이찬열·윤관석·정성호·김관영·이원욱·최원식·유성엽·유은혜·오영식·홍영표·부좌현·오계세·장하나·이목희·박홍근·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상희·김윤덕·강기정·도종환·안민석·은수미·이찬열·부좌현·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미경·유기홍·유성엽·김광진·정성호·양승조·김윤덕·도종환·박홍근·윤호중·부좌현·한명숙·한정애·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박홍근·배재정·김상희·정세균·유기홍·박혜자·윤관석·안민석·신학용·이학영·홍익표·진성준·신경민·김용익·김태년·김광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0)(계속)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도종환·박혜자·김상희·김윤덕·배재정·정세균·박홍근·윤관석·정진후·우원식·김태년·안민석·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유기홍·박혜자·안민석·배재정·박홍근·박원석·서기호·도종환·심상정·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김상희·유기홍·도종환·이찬열·윤관석·김태년·이연주·김광진·정진후·김재윤·강창일·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박창식·문대성·김한표·이한성·박인숙·홍지만·정희수·김정록·안중범·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

윤재옥 · 장윤석 · 이상일 · 최봉홍 · 김상민 · 이강후 · 박성호 · 박윤옥 · 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장하나 · 김광진 · 김재윤 · 김상희 · 박민수 · 박주선 · 배재정 · 백재현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박남춘 · 전병현 · 변재일 · 박홍근 · 김성주 · 안민석 · 김현미 · 안규백 · 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박명재 · 안홍준 · 류지영 · 주호영 · 박창식 · 윤명희 · 이에리사 · 전하진 · 서상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6)(계속)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정훈 · 장윤석 · 이채익 · 강은희 · 주호영 · 심학봉 · 김태흠 · 서용교 · 김을동 · 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김성곤 · 심상정 · 정진후 · 박원석 · 서기호 · 김현미 · 전순옥 · 홍영표 · 강동원 · 이목희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 · 나성린 · 서상기 · 홍철호 · 김장실 · 주호영 · 배덕광 · 양승조 · 강은희 · 류지영 · 황인자 · 이종훈 · 윤상현 · 박민식 의원 발의)(계속)
2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27.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헌 · 정수성 의원 발의)(계속)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김성주 · 유기홍 · 배재정 · 박혜자 · 박주선 · 강기정 · 진성준 · 김관영 · 장병완 · 김태년 · 김재윤 · 정진후 · 진선미 · 안규백 · 부좌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00)(계속)

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윤후덕 · 신학용 · 추미애 · 배재정 · 이상직 · 김성곤 · 이목희 · 김승남 · 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 · 이상일 · 윤명희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신경림 · 홍철호 · 양승조 · 정병국 · 유승우 · 이한성 · 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45)(계속)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재윤 · 유성엽 · 도종환 · 김동철 · 배재정 · 김광진 · 박지원 · 정성호 · 김성곤 · 부좌현 · 박기춘 의원 발의)(계속)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박홍근 · 배재정 · 윤후덕 · 배기운 · 추미애 · 유대운 · 안홍준 · 이한성 · 이상직 · 정의화 · 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김상희 · 김윤덕 · 강기정 · 도종환 · 안민석 · 은수미 · 이찬열 · 부좌현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장하나 · 김재윤 · 이미경 · 유기홍 · 유성엽 · 김광진 · 정성호 · 양승조 · 김윤덕 · 도종환 · 박홍근 · 윤호중 · 부좌현 · 한명숙 · 한정애 · 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도종환 · 박혜자 · 김상희 · 김윤덕 · 배재정 · 정세균 · 박홍근 · 윤관석 · 정진후 · 우원식 · 김태년 · 유은혜 · 장하나 · 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유기홍 · 박혜자 · 안민석 · 배재정 · 박홍근 · 박원석 · 서기호 · 도종환 · 심상정 · 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박홍근 · 김상희 · 유기홍 · 도종환 · 이찬열 · 윤관석 · 이연주 · 김광진 · 정진후 · 김재윤 · 강창일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 대표발의)(윤관석·박홍근·배재정·윤후덕·배기운·추미애·유대운·안홍준·이한성·이상직·정의화·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4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상희·김윤덕·강기정·도종환·안민석·은수미·이찬열·부좌현·박혜자 의원 발의)(계속)
-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도종환·박혜자·김상희·김윤덕·배재정·정세균·박홍근·윤관석·정진후·우원식·김태년·유은혜·안민석·장하나 의원 발의)(계속)
- 4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유기홍·박혜자·안민석·배재정·박홍근·박원석·서기호·도종환·심상정·김제남 의원 발의)(계속)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김상희·유기홍·도종환·이찬열·윤관석·이연주·김광진·정진후·김재운·강창일·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배재정·이찬열·장하나·황주홍·이상직·김성곤·전순옥·홍의락·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인성교육진흥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정의화·김성찬·안홍준·손인춘·유승우·이재오·김장실·이강후·여상규·정병국·이채익·이현재·김성곤·김을동·윤관석·이한구·김춘진·백재현·임내현·안효대·장윤석·심윤조·함진규·정문현·서용교·김태호·김종태·길정우·이원영·이자스민·성완중·주영순·신학용·문정림·나성린·이학재·송광호·박인숙·조명철·한기호·황진하·이찬열·최원식·윤후덕·김정록·원유철·이명수·유성엽·김영우·이만우·박민석·서기호·이이재·김희국·안덕수·유기홍·박창식·김현숙·강은희·김희정·송영근·류지영·윤명희·조원진·김상민·정수성·조경태·김정훈·유승민·신경림·오병윤·이종훈·김학용·정세균·김재경·서상기·유재중·김상훈·박성호·이진복·한선교·윤영석·이에리사·주호영·정우택·정진후·박윤옥·박주선·이근현·진성준·김동철·원혜영·홍지만·김광진·이우현·권성동·강석호·한명숙·박대동·양승조·문대성·이병석 의원 발의)(계속)
- 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세연·김장실·김태원·박인숙·손인춘·송영근·심재철·안홍준·李宰榮·정희수·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4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배기운·김우남·김춘진·장하나·김제남·윤후덕·이미경·이윤석·김기준 의원 발의)(계속)
- 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박홍근·배기운·강동원·최민희·김춘진·이원욱·배재정·도종환·김관영·윤관석·김성주·원혜영·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5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성찬·이현재·이한성·주영순·강기운·신경림·김동완·심윤조·최봉홍·윤재옥·박덕흠 의원 발의)
- 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유은혜·홍의락·박홍근·김승남·정진후·김상희·배재정·배기운·도종환·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이만우·오제세·조원진·김종태·조명철·박인숙·길정우·이학재·김상훈 의원 발의)(계속)
- 5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박주선·최규성·배기운·김춘진·박민수·이원욱·신기남·정세균·김성주·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 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진선미·유성엽·장하나·안민석·이찬열·김승남·남인순·정성호·박남춘·김재윤·김광진·전해철·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박주선·안민석·박홍근·배재정·박혜자·유기홍·윤관석·정진후·도종환·유인태·조정식·유은혜·안홍준·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5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김현숙·

정갑윤·이만우·강석훈·이현재·홍지만·김정록·김태환·유재중·이원영 의원 발의)(계속)

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배기운·부좌현·이만우·정호준·전해철·김재윤·전순옥·장하나·민홍철·이상직·김광진·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0시23분)

○**위원장 설훈** 의사일정 제1항 이상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1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어제 처음으로 개의된 소위에서 위원 전원의 참석 아래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범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법안심사소위원장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12월 4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이상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박홍근 위원이 대표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안의 제명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수능시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입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 하향 지원자 등을 제외한 직접 피해자만이 구체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와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박민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벌칙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정도를 ‘상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 박홍근 의원,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안민석 의원, 박창식 의원, 강은희 의원, 윤관석 의원 등 스물한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2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상희 의원 등 일곱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위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전교육 의무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에서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분리하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할 것과 사고 이후 보고 및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을 규정했으며,

다섯째,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 박홍근 의원,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안민석 의원, 이원욱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기

본법(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첫째, 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부분은 조직신설에 따른 상당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 교육부 소관 기관 증가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했습니다.

둘째,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을 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의 조직과 인력,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민간 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의 인증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인증 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 의원, 김장실 의원, 조명철 의원, 강동원 의원, 유기홍 의원, 심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야영장 및 유원시설 이용자와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해당 지역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자의 신

청을 받아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숙 의원, 윤관석 의원, 김윤덕 의원, 유대운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 운영·관리자에게는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되 안전점검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인 체육시설 종사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지원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의 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본칙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명 및 각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피해자 정의 조항, 안 제5조 및 제6조의 대학 정원에 대한 특례 조문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7항까지 부좌현 의원, 성완중 의원, 박혜자 의원, 박인숙 의원, 신학용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 도중환 의원—2건입니다,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안민석 의원, 김현숙 의원, 박창식 의원, 정청래 의원, 이찬열 의원, 강은희 의원—2건입니다, 김도읍 의원, 김제남 의원, 김희정 의원, 조명철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3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박혜자 의원, 윤관석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 윤관석 의원, 박홍근 의원,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안민석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을 의결할 차례인데, 제정법률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의 축조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의 2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자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칙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의 목적 및 정의 조항, 인성교육 기본방향,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조항입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그리고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인성교육, 가정 인성교육,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인성교육평가, 교원 연수, 전문인력양성, 과태료 조항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까지 조명철 의원, 강동원 의원, 김윤덕 의원, 심재철 의원, 유기홍 의원, 김장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김윤덕 의원, 유대운 의원, 설훈 의원, 김현숙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59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한 법안 의결은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관으로부터 오늘 처리한 법안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46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수능 오류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대학과 함께 전형 결과 재산정, 추가 합격 등 관련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 현안질의

(10시42분)

○위원장 설훈 이어서 어제 그제 승마협회 등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 들어갈 시간인데 어제 그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흥 위원님 먼저 들었으니까……

○안민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살생부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흡사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새누리당 모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본 위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당 위원님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살생부 중의 일부입니다.

빨간 밑줄 그은 것 보면 “장기적으로 시·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안”, 저 내용이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저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에 20년, 30년 회장 하는 분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왜 대통령이 취임 불과 3개월, 4개월 지난 시점에서 국방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저 소소한 체육단체장에 관련된 저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을까, 그리고 저 발언이 하필이면 이 살생부 내용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취지일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살생부를 작성한 이 사람은 공금 횡령으로 징역을 몇 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렇게 국정농간을 ‘정윤희’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 워딩까지 하도록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지난 회의에서 근거 없이 발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신상발언을 일단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지금 논의가 문체부 중심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배재정 위원 그래도 사회부총리는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설훈 지금 현안 내용에 문체부만 관련이 있고 교육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부 쪽 직원들은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장차관은 남아 계시고요?

○위원장 설훈 장차관만 계시고.

좋습니다. 장차관만 계시고 교육부 관련 직원들은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참모들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나?

○한선교 위원 교육부를 먼저 질의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설훈 아, 교육부 질의할 게 있습니까?

○한선교 위원 저는 없는데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없으면 먼저 차관도 같이……

○위원장 설훈 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기흥 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교육부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부총리는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저도 교육부장관하고 관련된 질의도 있어요.

○위원장 설훈 그래요?

○안민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진룡 장관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성범 위원 시간을……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7분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유진룡 장관이 논란의 종지부를

적었습니다. 이로써 퍼즐은 다 끼워 맞춰졌습니다.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먼저 김종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유진룡 장관은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김진선 평창조직위 위원장의 사퇴가 김종 차관, 이재만 비서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사실무근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장관이 거짓말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제가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김진선 사퇴하고 차관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평창조직위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데 주무 부처 담당 차관, 체육 차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안민석 위원 사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든지 아니면 사퇴를 유도했는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국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평창조직위원장이 사퇴를 하는데 차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거짓말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장관님께서……

○안민석 위원 박원오 씨 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박원오 씨, 들어서 알았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신뢰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어느 기자에게 “박원오를 신뢰하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자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어느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박원오를 신뢰하라.”…… 박원오는 이 살생부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정운회 측근입니다. “박원오를 신뢰하라. 박원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어느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한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 기자회견, 장관이 지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가 그것은……

○안민석 위원 장관이 지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장관님과 같이 얘기한 겁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하고 차관하고 모여 가지고 둘 다 ‘하나, 둘, 셋’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국회……

○안민석 위원 지시를 한 겁니까, 차관이 하라고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민석 위원 누구 지시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 혼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차관이 좋다고 이렇게 동의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리고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조현재 차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조현재 차관은 저희하고 상관이…… 조현재 차관은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님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차관이 하자고 그랬다, 차관의 이야기를……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희대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회 딸 관련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4월 8일 날 하는데요.

저는 정부한테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한 것을 문체부에서 반박 기자회견·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도 냈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보통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10줄을 넘지 않더라고요, 제가 쪽 봤습니다.

그런데 저 반박 자료는 12페이지가 돼요. 문체부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또 반면에 그 즈음에 이 상임위에서 이 앞줄에 앉아 계시던 모든 여당 위원님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저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근거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체부 차관의 기자회견에 반대했던 유진룡 장관은 결국에는 경질이 되었고 차관 역시도 반대를 했습니다, 조현재 차관. 반대했던 조현재 차관은 한체대 총장 4명 경선에서 1등으로, 압도적으로 이긴 저 조현재 총장 후보의 임명을 거부합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해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황우여 장관님, 저게 바로 조현재 차관이 한체대 총장 임명을 못 받은 이유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장관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저는 장관님의 인품을 믿습니다. ‘조현재로 하자.’ 저는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문고리 3인방에서 눈 밖에 난 안민석을 반박하라고 그랬는데 조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문고리 3인방에게 미운털이 박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체대 총장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당시에 이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일제히 포문을 열면서 공격을 했던 그 선두에 있던 김희정 당시 간사는 여성부장관이 돼요. 아하 참 웃기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신성범 위원 저것은 오버다……

○안민석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희한한 일이 된 거예요.

문체부 차관과 여당 위원님들이 저를 공격할 때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보도자료, 저 내용은 살생부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당 위원님, 제가 성함까지 대지 않겠습니다. 문체부와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살생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작성한 박원오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서 국장·과장을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관도 반박하고 여당 위원님들 똑같은 논리로 반박해요.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여당 위원님들하고 차관하고 ‘하나, 둘, 셋’ 해 가지고 이십전심으로 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11년째 이 상임위에서 하는데 저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무리 야당 위원이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여당 위원들 한두 분이 그냥 반박하고 자체를 요청하는 발언하지 여당 위원들이 마치 짠 듯이 저렇게 동시발언을 하는 경우가 제가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설훈 1분……

○안민석 위원 저 이야기는 문체부 차관께서 정윤희 딸에 대한 두둔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선수에 대해서 정부가 뭐 하러 저렇게 나서서 두둔을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게 일개 평범한 선수였으면 저랬겠습니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아주 독보적인 실력이다”……

무슨 독보적인 실력입니까? 승마계에서는 심판 판정 조작해 가지고 국가대표 되고, 그것으로 아시안게임 선수 되고, 그것으로 단체팀에서 금메달 따고, 그것으로 대학에 특례입학했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독보적인 선수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냐 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주장도 다 똑같아요.

보세요.

여당 위원님들 주장, 차관의 주장은 승마계 전문가들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저랬습니까? 도대체 누가 시켰길래…… 여당 위원님들도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여당 위원님들이 조

직적으로 이렇게 나서실까? 차관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 주장에 대해 반발할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오늘 전 장관의 시인 발언으로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고 세상 아래 비밀은 없다는 것 맞춰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봄에 주장했던 소설과 같았던, 허구와 같았던 그 이야기가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맞으면서 이게 진실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촉구합니다. 차관은 왜 저렇게 두 번이나에 걸쳐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이렇게 뿌렸는지 여당 위원님들은, 특히 저때 발언하셨던 여당 위원님들은 왜 저렇게 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주장들을 일제히 하셨는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도 한마디씩 제가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선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설훈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에리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안민석 위원께서 작년부터 이번 승마협회 또 그 특정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조사·수집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그 진위,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발언 중에 마치 문체부하고 여당 위원들 모두가 다 소위 작당을 하거나 조작을 해서 집단적으로 안민석 위원님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진실을 소위 뭉개려 했다, 이것은 굉장히 여당 위원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민석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이 저한테 집중 공격한 것은 예의입니까?

○한선교 위원 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시고.

○안민석 위원 아니, 제대로 말씀을 하세요.

○한선교 위원 안 듣고, 내가 지금.....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가만 계세요. 안민석 위원, 가만 계세요.

○한선교 위원 안민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서.....

○안민석 위원 어떤 게 결례이고 어떤 게 예의인지 제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 설훈 안 위원, 잠깐 계세요, 안 위원.

○한선교 위원 저기에 이름을 ‘김장실’, ‘김희정’, 누구누구 해 가지고.....

아니, 위원들이 각자가 자기의 의견을.....

그리고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안민석 위원이 주장하는 그 진실이 진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진룡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당시 취임했을 때도 ‘유 장관은 우리 당 장관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밀했던 그 유 장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 시간에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의혹을.....

○유기흥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선교 위원 들어 보세요, 좀!

○안민석 위원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한선교 위원 의혹을 제기하고 계실 뿐이고.....

○유기흥 위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을 왜 우리가 우리 당 장관이라고 그러니까?

○신의진 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한선교 위원 들어 보세요.

○유기흥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한선교 위원 들어 보세요.

앞으로 오늘 밤늦게까지 할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조심하시란 얘기에요,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진룡 장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저는 바라건대 이 위원회에서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안민석 위원 청문회 합시다, 청문회 합시다.

○한선교 위원 안민석 위원님, 왜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잠깐 계십시오.

○안민석 위원 한선교 위원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한선교 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설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잠깐 계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말씀 중에.....

○한선교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이 진실 여부가 밝혀지길 바라요, 진심으로.

다만 안민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

식의, 그런 방법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예,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말씀……

○안민석 위원 제가……

○위원장 설훈 조금 이따가……

이에리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영광스럽게도 제가 저기에 올라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상임위원회 때 그 선수가 지나치게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하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띄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정윤희 씨 딸 정유연이라는 선수가 사실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가를 보십시오. 제가 경기 실적증명서를 띄우겠습니다.

불을 앞에 꺼 주시지요.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화면이 조금 흐린데……

앞의 불 좀 꺼 주시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께어요.

○이에리사 위원 뒷장 넘겨 보세요.

계속 1등을 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심판의 부정행위로 아시안게임의 대표선수로 선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니고 2007년부터 금년에 아시안게임 끝나고까지 모든 대회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 마장마술이라는 경기는 남녀가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요, 남녀가 같이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시합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데 저렇게 1등을 하고 국가대표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고요.

자, 아시안게임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셨는데.

승마 국가대표 선수 13명 중에서 고등학생이 정유연 선수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난 번에 안민석 위원께서 마사회장 쓴 것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훈련장이 없어서 협회의 요청 아래 한국마사회에서 운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다음 페이지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해서, 그 경기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단체전 경기 결과가 우리나라가 1등을 했고 일본이 2등을 했는데 그 2등 한 선수, 우리 1등 한 그 선수……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한국에서 4명이 시합을 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3명의 점수를 토털 평균 내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할 때 정유연 선수가 세 번째 실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실력이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첫 번째 김균섭인가 저 선수는 탈락을 했습니다. 저 선수 점수가…… 정유연 선수를 포함한 선수 3명이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하에서 안 나오는데 일본은 일본 선수 4명 중에서 정유연 선수보다 점수가 많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합을 잘한 것이지요.

단체전 경기 할 때 정유연 선수가 남녀 32명 중에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전 할 때 대단히 기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땀지요.

9월 20일 날 단체전이 끝나고 9월 21일 날 개인전을 했습니다. 개인전을 하는데 우리 이 선수가 8위를 했습니다. 사실 운동에서 개 발에 땀났다는 얘기 많이 하지요, 누가 봐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체전 할 때 32명 중에서 5위를 했고, 개인전 할 때 30명이 뛰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태국 공주가 시합 안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30명이 뛰어 가지고 이 선수가 8위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안 볼 수가 없지요, 더구나 남녀가 통틀어서 시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심판진을 보시겠습니다.

심판, 누가 봐줬느냐?

보십시오.

독일 심판, 폴란드 심판, 벨지움 심판…… 아, 포르투갈입니다, 두 번째. 포르투갈 심판, 세 번째가 벨지움, 네 번째가 캐나다, 다섯 번째가 USA…… 왼쪽에 ‘E·H·C·M·B’는 점수를 매기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저렇게 외국 심판들 5명이 경기장에서 심판을 해 가지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를 했고 대표선수에 선발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당연히 선수 출신으로, 체육인 출신으로, 전문가로서 저 선수의 대표선수 선발이나 경기 실적에 아무런 문제없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을 따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어느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습니 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승마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 다. 듣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그게 사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자료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가 28년, 25년 한 사람들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화면으 로 띄우셨는데……

승마협회 관련 특별감사 주요 지적사항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 다. 아까 얘기한 강원도의 예를 들 면 오래하셨지요. 3억 5000만 원짜리 말을 국고 로 샀습니 다. 국가대표 안에 그 아들이 있습니 다.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시합을 했습니 다. 그분 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 제가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닌 것을 누가 시켜서 짜고 그런 이야기 를 했다고 하면 저는 체육인으로서 그것은 굉장히 사과를 받고 싶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 데이터를 보고 이 선수가 어떻게 특혜를 받고 국가대표 됐다고 이 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스코어 시 합이 아닌 것, 절대평가의 대회는 늘 채점에 대 한 문제가 이야기는 나옵니다, 심증적인 것이 되 기 때문에. 그 심증적인 것 때문에 이 어린 유망 한 선수 한 명이 매도되고 희생되고 대회장에 나 올 수 없다면 저는 그 모든 게 다 어른들의 책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 히 제가 그 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변론했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저에 관련된 이야기니 까……

○**염동열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염 위원.

○**안민석 위원**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안 위원은 신상발언하신 다음 에……

염동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염동열 위원** 안민석 위원님이 띄웠던 그 영상 2개 띄워 보시지요. 그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게요.

있습니 다, 있는데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장실 위원 난 것을 쪽 읽어 보겠습니다. “기 자회견 나선 승마협회 관련 인물들이 체육계의 비리 등을 호소할 만한 당당한 입장에 있다고 보 는가?” 이것 집단적 그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 다.

그다음에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김희정 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냥 가설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 넘겨 보십시오, 제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제 것 보겠습니다. “선수 기록을 보게 되니까 이 선수 또한 계속 1등, 수십 번 1 등을 했어요.” 이것이 ‘조직적’, ‘집단적’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 까, 안민석 위원님?

지난번에도 면전에 놔두고 “강원도 사람들이 뺨을 때어서 올림픽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집단적’, ‘조직적’하고 무슨 상관 있습 니 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하고 얘기 나눠본 적 없어요. 우리 안민석 위원이 그런 의 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 다마는 제가 본 것은 긍정적인 측면, 그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받고 또 그 자료를 본 가운데, 오늘 이에리사 위원님 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번 1등을 했어요. 그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조직적·집단적으로 우리 가 뭘 반박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 까, 안민석 위원님?

적어도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지요. 지난번 강원도에 대 해서도 면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나름대로 덮고 넘어갔습니 다마는 또 오늘 이 문구가 어떻게 조 직적·집단적으로 안민석 위원님을 공격했습니 까? 저도 나라의 헌법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보 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조 사·분석한 내용을, 그리고 제 발언시간에 말씀 을 드린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어요?

○**한선교 위원** 사과받아.

○염동열 위원 그리고 김희정 간사가 장관 된 것 저것과 연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을 조심하셔야지요.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염동열 위원 아니, 제가 말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한선교 위원 사과받아야 돼.

○염동열 위원 안민석 위원님, 저는 정말 국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민석 위원한테 동감한 적도 많았고요, 또 제가 알지 못한 정보도 안민석 위원이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 문구가 어떻게 조직적·집단적인 문구가 되겠습니까? 6명 다 한번 훑어보시지요. 그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사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일단 세 분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교 위원님의 그 말씀은 그러면 결국에는 전제가 유진룡 장관이 오늘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한선교 위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항상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안민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 여야 위원들이 논란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에리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에리사 위원님은 체육인이지 승마인이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승마인이 아닙니다. 마장마술을 정유연 선수, 6월 달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그 동영상 보셨나요? 탈락된 김혁 선수의 동영상을 보셨나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승마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에리사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한 선수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기 바래요.

그러나 마치 승마를 다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승마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요. 진정한 체육인들이라고 그러면 승마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세 번째로 염동열 위원님 말씀은, 지난 국감에서 평창 관련된 그 발언은 이미 제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까지 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염동열 위원 저한테 사과 안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사과 안 했잖아요?

○안민석 위원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염동열 위원 사과하세요.

○안민석 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께 사과한 것이지요. 왜 제가 염동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따로 사과 안 했다고 그런 말씀을……

○염동열 위원 말씀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사과할 말씀을 뭐 하러 하십니까?

○안민석 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리고요……

○이에리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만하시고……

○배재정 위원 그만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설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 PPT에 띄웠던 위원님들의 저런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저게 조직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한두 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염동열 위원 아니, 조직적…… 적극적으로 매도하는데 반응을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해명을 촉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적이 아니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염동열 위원 해명한 거예요, 우리가 해명한 거예요.

○안민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사과를 요청합니까?

○염동열 위원 사과를 해야지요.

○안민석 위원 야당이 말을 못하게 해요, 왜?

○위원장 설훈 이에리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모욕을 했으니까 사과를 하라는 거지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설훈** 이종훈 위원 가만 계세요.
 ○**안민석 위원** 저에게 모욕했던 것에 대해서……
 ○**이에리사 위원** 지금 사실……
 ○**위원장 설훈**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저도 발언……
 ○**유기홍 위원** 본질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잠깐만, 회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설훈** 이에리사 위원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종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제가 안민석 위원님하고 자꾸 이렇게 오가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아서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장마술을 아느냐, 승마인이나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민석 위원님, 체육 아세요? 심판 아세요? 경기장 아세요? 이번 아세요? 절대평가의 경기는 복싱선수가 한 번에 다운을 당했어도 1점 되듯이 승마선수가 낙마한 것도 1점일 수 있고 2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시험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저는 안 봤지만 그 선수가 시험을 했는데 1차·2차·3차 시험을 했다거나 무슨 평가기준이 있었겠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실적증명서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한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매도하는 것, 이 선수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것을 “승마인이나?”라고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 선수가, 국가대표선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저처럼 경기실적증명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선수가 대회에 출전한 모든 경기실적,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외국 선수 5명이 평가한 점수, 30명 중에서 8위 하고 32명 중에서 5위 한, 그것도 남녀 통틀어서…… 그 결과 갖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뜬금없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 승마인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식으로 체육인에 대한 저의 명예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안민석 위원님 사과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사과할 일도 참 많네.

○**위원장 설훈** 이종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저는 그 당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승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환노위에 있을 때도 굉장히 대립적인 토론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상임위에서 상대 당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서는 문제 삼고 심지어 모욕을 주는 일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도, 다 국민이 선출해 준 선출직이고 대표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당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저는 아연실색한 것은 “김희정 위원께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장관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럴수록 더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의원을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안민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유기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신청했었고,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내용이 막 뒤섞인 발언들이 계속돼서 예정됐던 제 본질의를 하고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이후의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렇게 하세요.
 ○**유기홍 위원** 지금 본질의에서 벗어나서……
 ○**위원장 설훈** 질의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이어서 배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잠깐만, 잠깐만……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선교 위원** 사과하고……

○**유기흥 위원** 본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에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노태강 전 국장, 진재수 전 과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날 그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재수 과장은 세종시 출장이라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노태강 국장은 오후 내내 연락을 했는데 잠시 지인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사람이 핸드폰도 놓고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행방이 파악 안 되는 것은 명백하게 근무지 이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오늘 상임위에 그 사람들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입을 맞춰서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진룡 장관 관련된 보도가 있자마자 그 두 사람이 다시 행방불명이 됐어요. 노태강 국장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지금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재수 과장은 아마 그 보도를 늦게 본 모양이에요. 오늘 국회로 출장을 나온다고 출장을 나가서 그 이후에 또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상급자도 파악하기 어려운 식의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이것은 명백히 감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우여 장관님, 경북대병원이 현재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본원은 600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줄이고 부채, 방만 경영이 우려되는 제3병원을 건립해서 700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 즉각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경북대병원 파업 8일째 상황을 조사하시고, 그리고 경북대병원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김종덕 장관님, 우리가 정윤희 씨 딸 말 타는 문제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

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이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바로 그에게 김종덕 장관이 부인했던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8월 유진룡 전 장관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서 수첩을 보며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을 꼭 집어서 “나쁜 사람들이라더라”고 인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보도에 따르면 유진룡 전 장관은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대통령의 나쁜 사람 인사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유 장관은 승마협회 조사결과가 정윤희 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정윤희 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고 꽤 씩한 담당자들이—그 담당자들이 노 국장하고 진 과장이지요. 그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침에 사실은 제가 그 보도를 봤습니다. 아침에 보도를 보고 제가 국장과 차관에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실제로 아마 7월 달인가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7월 달인가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인가에 국무회의에서 전임 유 장관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 국장하고 진 과장이라는 이 두 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제가 보기도 저라도 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것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체육계에서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기흥 위원** 그러면 유진룡 장관이 언론에 얘기한 부분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유기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유기홍 위원 지난번부터 김종덕 장관은, 상주 경찰서 조사 사건 있고 나서 다시 청와대 행정관이 진재수 과장을 불러서 조사를 시켰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종덕 장관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부인한 적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홍 위원 확인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당부도 드렸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비서실장하고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교문수석하고 그 사실 확인했어
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때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장관으로서 하실 얘기입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과거에 있었던 비리나 잘못된 일이 설사 있더라도 그건 밝힐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유 장관……

○유기홍 위원 이게 먼 옛날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유수 언론사가 이틀에 걸쳐서 일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로 직전 장관이 그게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의견이 없습니까? 지난 시절 일이라서 모르겠다고 하면 끝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은……

○유기홍 위원 노태강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한테 정식 보고 받았어요,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차관·국장을 통해 가지고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유기홍 위원 제가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윤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원오 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유기홍 위원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정윤희 씨 측근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니다.

○유기홍 위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박원오 씨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유진룡 장관도 그런 것을 인정한 것인데 잘 들어 보세요. 유진룡 장관이 노 국장하고 진 과장의 인사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것 속에는 5월 달 청와대의 승마협회 조사 지시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깐 이 사람들 경질했다는 맥락입니다. 맥락이 아니라 사실 명료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5월 달, 6월 달에 진재수 과장이 다니면서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당시에 박원오 씨를 만났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장관이 나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체육단체 정황 보고한 것을 자꾸 이것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달리 5월 달, 6월 달 사이에 진재수 과장이 다니면서 승마협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6월 15일 자 진재수 과장의 카카오토티에 보면 박원오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대목을 자기 카카오토티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5월 달, 6월 달 사이에 진재수 과장이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문제의 정윤희 씨 측근이라는 박원오 씨 만났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육단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그거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체육국장이 진재수 과장이나 노 국장하고 통화한 결과 조사는 했는데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다, 물론 보고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지만 그 조사에 대해서 지금 장관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진재수 과장이 박원오 씨를 포함해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은 그 당시 승마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다 나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박원오 씨도 만나서 했는데 조사 결과가 정윤희 씨가 보기에 둘 다 나

쁜 사람들이니까 둘 다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가 전해 듣고,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인사 조치한 거예요. 전혀 인사 시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엉뚱하게 박물관하고 한예종으로 보냈습니다. 좌천이지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사실조차도 장관이 인정을 안 합니까?

김종 차관, 이제만 청와대 총무비서관하고 한양대학교 선후배 관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한양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알고 있어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유진룡 장관은 “김종 차관은 이제만 비서관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제만 비서관이 대통령을 움직여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 차관이 한때 모셨던 장관입니다. 이분이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같이 일해 본 경험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시던 존경하는 유진룡 장관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기흥 위원 소송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저의 명예의 실추가 있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다음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기흥 위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노태장 국장, 진재수 과장 나온다 그랬다 안 나오고 또 어쨌든 바로 직전 이 해당 시기의…… 장관은 자꾸 전임자들 문제라서 아는 바 없다고 그러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의혹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윤희 씨 딸 말 타는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으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 유진룡 장관도 나오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박원오 씨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

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 장관과 당시 차관이 법정에서 맞붙는 불쌍사나운 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려질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청문회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설훈 강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은희 위원 지금 안민석 위원께서 안 계셔서……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희는 동료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까 안민석 위원께서 저희 여당 위원들 발언을 갖고 기록을 아주 프레젠테이션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김희정 장관이 그런 일 때문에 마치 장관에 임용이 되었다는 듯이 폄훼하는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당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회의 진행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아마 이 자리가 무척 곤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때 언론 1면 보도로 인해서 사실 곤혹스러우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보도가 공교롭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안타깝게도 장관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말씀에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문화부 수장으로서 내심 다르게 생각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그러면 과연 저간의 사정을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확실히 알고 계신가? 제가 며칠 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장관 임용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로 인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김종 차관님 오늘부로 막강한 정권 실세로 부상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가려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체육 관련 인사 김종 차관님이 하실 것이라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요. 장관님 체육 관련 잘 모르실 것이고요. 그런데 조직 개편 국감 때 딱딱딱 했고, 장관님이 사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문화부 대대적인 조직 개편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장관님 말씀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청와대 인사 개입은 근거 없는 루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분명히 단서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팩트에 대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 의견……

○배재정 위원 팩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근거 없는 루머다”라는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지금 팩트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장관님, 그러면 지금 답변을 뒤에 근거해서 하세요?

노 국장님, 진 과장님, 그다음에 김종 차관님, 유진룡 장관님 다 연락해 보고, 아까 청와대 교문수석까지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유진룡 장관하고 통화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유 장관하고는 안 만났습니다. 공연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배재정 위원 사실 확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현 체육국장하고 2차관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 그 두 분이 얘기하신 것이 다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장관님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장관님,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이 당파성 문제로 미디어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이런 보도 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확산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일반론적인 것을 어제 기자들이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일반론적인 것을 장관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무장관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린 것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앞뒤 잘라놓고 보면 그러신데요, 실제로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는가에 대해서……

○배재정 위원 아니, 저는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최소한은 다하셨어야지요.

오늘 유진룡 장관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날지 우리도 다 몰랐지요. 장관님도 모르셨겠지요.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전직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관님한테 그 책임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파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배재정 위원 언제까지 노력만 하실 것입니까? 김종 차관님이 장관님께 모든 사실을 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조직 개편도 딱딱딱 했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김종 차관에게 모든 실세가 다 몰려간 것 아니냐, 이런 조직 개편 제대로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보면 이렇게 꾀가 다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진룡 장관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청와대에 승마협회·정윤희, 모든 문제가 있어서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린 바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사만 하고 보고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알아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유진룡 전 장관이 한 말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너무 전제로 하고서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

습니다.

○**배재정 위원**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유진룡 장관께서 하신 말씀만이 다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과 현안 파악을 할 책임이 장관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장관께서 문화부 인사를 전부 다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진룡 장관 때는 이렇게 청와대가 개입을 했는데 김종덕 장관 때는 청와대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장관님 생각대로 모두 다 하고 있다,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혹을 다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하는 의혹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까?

문화부 인사 문제,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3개월 공석이었던가 지난 10월 말 임명되었고요. 그동안의 낙하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리랑국제방송 인사, 지금 사장 공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내정설이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분은 최근에 면접에서는 탈락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니 윤 씨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계속 거론되다가 결국은 그런 여론의 압박 때문에 감사로 된 것과 다 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산하기관 제대로 인사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 겪을 때 지난 국감 때 나선화 청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청와대 재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장관님 다 모르쇠 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안민석 위원님과 유기홍 위원님께서 청문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아직까지 현안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시고요, 물론 파악하시기 쉽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임 장관이 오늘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제일 사건의 핵심에 계신 분이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을 만났던 분인데 전임 장관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전임 장관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하시고 어저께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

게 그렇게 해서 퍼즐이 맞춰지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아시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파악 중에 있고 확인 중에 있는……

○**배재정 위원** 아무리 전임 장관 때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문화부의 일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사실 그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저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 보고에 기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배재정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파악하실 수 있고 진실을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진실을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이 지금?

청문회를 강력히 저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교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진후 위원 얘기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저는 안 쥐요?

○**위원장 설훈** 아,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이 하십시오. 그다음에도종환 위원……

죄송합니다.

○**한선교 위원** 위원장님, 저쪽으로 자리 좀 옮겨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설훈**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선교 위원** 누가 할 일이에요?

○**위원장 설훈** 저쪽에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지.

○**한선교 위원** 조금 뒤로 물러나면 하겠는데, 여기 있으니까 영…… 하여튼 이쪽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정진후 위원** 제 옆이 싫으십니까?

○**한선교 위원** 아니, 좋아요. 그건 좋아요.

○**위원장 설훈** 신성범 간사하고 상의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김종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먼저 교육부장관님, 문자 그만하

시고요.

(웃음소리)

조현재 차관이 한체대 쪽에 지원했고 탈락된 절차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장관은 어디까지 거기에 관여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난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한선교 위원 주된 거부의 이유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인사 문제라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지금 ‘조현재 차관도 불이익당했다, 유진룡 장관과 같이 차관을 해서.’ 자꾸 이렇게 불거지니까 이거 어디서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김 차관, 유진룡 장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솔직히 저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에 대해서 조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하는 동안에 장관님께서 인사라든지 모든 문제를 직접 하셨는데, 이제 와 가지고 저한테 청와대에 있는 모 비서관과의 연관성을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노 국장, 진 과장이 전보된 것이 유 장관 재임시절입니까, 그 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오기 전입니다. 유 장관 재임시절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유 장관이 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작년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승마협회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성 협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승마협회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도 야당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한 적이 없고, 체육단체 2099개 전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2099개를 다 하셨지요, 시도까지 해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청와대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국회에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강한 발언이 나오면 때로는, 김 차관 아까 있을 때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항상 청와대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차관은 청와대 교문수석실이나 혹은 장관이 안 가실 때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자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딱 한번, 유진룡 장관께서 그만두신 다음에 제가 장관님……

○한선교 위원 아니, 수석이라든지 그쪽 비서관이라든지……

아니, 문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선교 위원 거기에서 혹시 승마협회 정운희 씨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런데 야당 위원들이 궁금해하신 것, 왜 유진룡 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하지 마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 이메일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한선교 위원 어디엔가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저께.

하여튼 제 기억의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으로부터 제재 받은 적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없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 기자회견 내용도 말씀을 드리

고 하시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다 보고드리고 한 겁니다.

○한선교 위원 그런데 “이재만과 김종 차관과는 한 묶음으로 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사실무근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런데 이재만 비서관을 한 번뿐이 못 봤다는 건 제가 봐도 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사실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건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총무비서관이니까, 그 사람이 교문비서관이라면 볼 기회가 자주 있지만.

야당 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 제기하는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예’, ‘예’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김종 차관의 직을 걸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 거짓을 말해 갖고 청와대라든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겠다고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해 온, 이러한 일들이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승마협회도 체육부 쪽에서 관여한 바가 없고, 제가 듣기에도 노 국장, 제가 잘 압니다만 진 과장 이분들에 대한 인사 얘기가 유 장관 시절에 쪽 나왔어요. 뭐냐 하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렇게 들으셨겠지, 나중에 들어가셨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그러한 것들, 가능하면 대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들에게 저는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칙이니 정관 개정해 가지고 자꾸 예산도 늦게 주고 국제대회 개최하는데 그 대회비도 늦게 주고 그것이 마치 권력으로 작용한다 말이에요.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알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3선 제한이라든지 이건 누가 봐도 규제 아닙니까? 문체부의 어떤 권한의 상징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시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상임위에서 대한체육회 정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문체부가 그런 오해를 받느냐고요? 누가 봐도 56개 가맹단체 사무국장이나 회장들은 지금 불만에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왜 말 못 해? 혹 불이익당할까 봐.

이런 오해를 없애고 다른 개혁을 해야지요. 승마협회 누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야지요.

왜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문체부가 가져야 되는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여기에서만 ‘예’ 하고 또 전화로는 아니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오해 받을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 받을 일은 하지 말고 더욱더 단호하게, 잘못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또 단호하게 우리가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한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 말씀하시고, 박대출 위원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 말씀하시고……

○박홍근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도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세세한 이야기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세세한 것은 보고……

○정진후 위원 아니, 그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중요한 내용은 보고 받습니다.

○정진후 위원 보고받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히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증액된 대부분의 내용이 시설 확장이었어요. 분원을 만든다든가 병상 수나 병실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시설 확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회계상의 손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회계상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늘리고 시설을 확충했으면 그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도 섬세하고 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가져다가 지역주민들이 3차 의료기관 요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확충하면서 다른 여건들은 전연 감안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제반 노동관계법에도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절차를 전연 거치지 않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책임을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병원 구성원들과 경영자 측이 굉장히 심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런 형태로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성원과 협의한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가령 인구 13만 명이 존재하는 도시에 3차 의료기관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런 형태다. 그런데 그런 손실이 이후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학병원들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넣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차관님, 맞지요?

○**교육부차관 김신호** ……

○**정진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후에 대학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부대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주지시키고, 지금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사실상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앞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북대 칠곡분원 같은 경우도 병실 수와 병상 수를 늘리는 것, 지금 칠곡이라고 하는 지형적 조건이 사실상 환자의 접근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노동조합과 병원 운영자 측의 이런 대립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습시다만 지방교부세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1150억 원 교부금 감소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루속히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당장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1150억 원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책을 교육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지방교육청에서도 역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부분은 교육청마다 이제 세목이 나오면 조정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만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만이 저는 정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액으로 지급되고 또 그 후에 보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제가 모든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문체부장관님, 제가 그제 승마협회의 조사 경위나 과정, 보고서의 내용, 그다음에 국장과 과장의 인사 조치 과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충실하게 되지 않고, 특히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유진룡 전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장관님이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전연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전직 장관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셨는데, 그리고 전직 장관이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문체부 업무와 인사에 대해서 밝으신 분인데 그 밝은 분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현직 장관께서는 그와 관련된 분들을 직접 불러서 보고를 들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을 통해서 파악을 요청했다.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다. 전직 장관이 하신 것은 전직 장관이 알아서 하신 것이니 인사의 원칙에 충실할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김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지를 못해요. 지금 장관님은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장관은 차관까지 거친, 최소한도 문체부 업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장관님은 국장한테 이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밝혀야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앞으로 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일단은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보도가 나오고 그래 갖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 와서도 그러했고 또 100일 기자회견 간담회는 사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준비했던 게 아니고 100일 동안에 제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파악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거라서 그것에 대해 따로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측을 못 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관님이 너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즉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한 상태에서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오늘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논의의 초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대한승마협회의 운영 과정이나 선수 선발 과정에서 정윤희 씨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느냐, 특혜 시비가 있었느냐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체육계 비리 전반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문체부가 풀

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함이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나라는 게 논의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윤희 씨가 승마협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 그 문제는 지금 그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시사주간지에 대해서 정윤희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윤희 씨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정윤희 씨의 영향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판단키에는 아까 이에리사……

○박대출 위원 쉽게 말해서 선수 자질이 모자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지금 경기실적증명서를 갖고 있는데요.

2007년 8월부터, 초등학생입니다.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정윤희 씨의 딸이 각종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어 봤습니다. 1등을 한 게 54회가 됩니다, 1등을 각종 대회에서. 2등을 한 게 아홉 차례, 3등을 한 게 여섯 차례입니다.

압도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에 54차례나 1등을 한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땀지요.

선수가 4명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 4명 중에서 정윤희 씨 딸은 3위를 합니다. 그 당시 단체전 메달 순위는 4위를 제외하고 2위, 3위를 거쳤는데 3위까지 제외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 정윤희 씨의 딸이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금메달의 주역인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실력으로 금메달을 땀고 자기 실력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수치가 증명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의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특혜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오마이뉴스’나 또 SBS 방송 보도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윤희 씨 딸에 대해서. 그 당시 필리핀인지 어디인지 거기 공주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주를 이긴 승마공주”라는 표현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해서 실력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편파 시비를 하고 특혜 시비를 낸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였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육계 전반의 비리 문제가 인사 조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냐? 2013년 5월에 태권도 선수 선발전 과정에서 선수의 아버지가 심판 판정 시비로 해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고가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느꼈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시하고 체육계 비리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월에 사고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고, 2013년 7월 23일에 당시 유진룡 장관이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계획을 보고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단체의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이라는 이 내용이지요. 이게 당시에 보도가 됐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체육계에 만연한 비리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그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될 각 체육협회 단체장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체육단체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끼와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체육계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지난번에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월 26일에 당시 유진룡 장관이 체육

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99개의 체육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7월 23일 날 지시했는데 한 달이 넘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부에서.

이렇게 된다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담당 책임자, 담당 주무 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조치를 내 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뭉개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 넘게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물으셨을 때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실제로 담당 책임자를 문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다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그 당시에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그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의 운영비리에 대한 내용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봐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뭉개고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냥 봐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장관님,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답을 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 사견입니다만 민원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도 들어오지만 제가 볼 때는 청와대로도 들어가고 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로 다 들어간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한겨레신문에서 혹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처럼 실사 청와 대로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알아보라고 저희한테 지시했다라도 그게 큰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사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에 담당 책임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긴급한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유기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지금 제가 긴급하게 제보를 받았는데요.

문체부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메모를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는 제보인데, 아마 만약에 사진이 찍혔으면 곧 떠오를 텐데 김종 차관, 이런 메모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유기홍 위원 받은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유기홍 위원 우상일 국장, 이런 메모 보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 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상임위에서 메모까지도 왔다 갔다 이렇게 언론이 취재해서 되나, 이것?

○유기홍 위원 아니, 언론이 문제입니까?

아니, 체육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그런 메모를 차관한테 전달하는 게 이게 잘한 것입니까?

○위원장 설훈 체육국장, 일어나 보세요.

지금 그 사실이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우상일

○위원장 설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메모를 어떻게 전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봐요, 메모 내용하고 다시.

여야 싸움으로 붙여 나가라고? 여야 싸움으로

붙여 나가라고?

그게 공직자로서 할 얘기에요? 그것을 차관한테 메모라고 보내요?

○**김태년 위원** 그 메모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설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당장 가져와요! 메모 가져오라고!

○**안홍준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취재할 수 있는 라인을 딱 정해 줘야……

○**위원장 설훈** 여야 싸움으로 끌고 가야? 물고 가야?

○**박대출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뒤의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장차관들한테 관련된 의견서도 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첨부도 하고 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게 외부로 노출이 됩니까, 그렇게?

○**유기홍 위원** 들킨 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유은혜 위원** 그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대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아니, 공직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국회에서 여야 싸움으로 물고 가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장님, 제가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적절치 못한……

○**위원장 설훈** 이것은 책임자로 사과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고……

○**위원장 설훈** 주의를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 설훈**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자리예요! 여야 다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를, 국민을 싸움 붙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주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이것은 건국 이후에 처음 보는 일이에요.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공직자가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위원들을 싸움으로 물고 가라고? 그것을 직속상관에게 메모라고 전하고 있어요?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싸움으로 물고 가라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게 한 겁니다. 아마 국장이 차관께 싸움으로 물고 가게 하자고 한들 우리 위원들이 가지겠습니까, 그게?

아주 부적절한 메모를 보냈으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김태년 위원**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설훈** 이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여야면 국민 전체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자꾸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저한테 자료를, 제가 세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문체부 월중·주간 장차관 지시사항과 그 결과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서별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해당 기간 중 출장복명서, 이 세 가지 좀 오늘……

금방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가장 빨리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우리가 오전 회의에서 문체부 소관,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윤희 씨 자녀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그리고 문체부 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갑작스러운 경질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주무 부처를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문체부 이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문체부 2차관에게…… 사실상 문체부 2차관에게 전달된 메모지만 이견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던, 또 그런 의도로 보

여지는데, 위원들의 질의 대응으로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런 메모가 전달된 사실이 언론 사진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고위층부터 국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처의 국장이 “여야 싸움을 부추겨야 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런 행위를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버젓이 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러한 사태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요, 당사자인 체육국장과 김춘차관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예.

○배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설훈 예, 배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저는 금방 김태년 간사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상임위장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앉아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물론 두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앉아 계시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나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체육국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 앞에 서세요.

그 메모가, 누구 지시를 받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아닙니다.

○위원장 설훈 본인 생각으로,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차관에게 전달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훈 차관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모 용지가 결국 장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러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관 이상일 제가 차관님한테 그 메모를 드렸을 때,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앞의 말이 생략되고 그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야의 싸움으로 몰고 가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의도는……

제게 변명 기회를 주신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써서는 안 될 표현, 제 실수였든 아니었든 그런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배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관…… 차관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제가 차관님한테 쪽지를 드렸는데요. 여야 위원님들이, 오전에 제가 뒤에서 배석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고성이 오고가고 하시길래 차관님이 나서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뒷사람을 모시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이 잘못 나왔습니다.

백배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훈 들어가요.

박주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투우장입니까, 투견장입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정운회 게이트와 관련하여 문체부까지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문체부장관이 직접 주고받은 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이것이 큰 의혹으로 번져서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실로 단정을 하면서, 이것이 헌정체제나 헌정질서를 붕괴 내지 파괴하고 있는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점의 허위나 또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이야기해 가지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지금 국민의 목소리이고 요구인데, 세상에 어떻게……

장차관의 진실된 답변을 보좌해야 할 국장이 ‘진술을 하지 말라. 은폐를 하라’ 하는 취지로 ‘무조건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

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윤희 게이트와 관련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문체부장관 주재하에 참모회의가 또 전략회의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감히 이런 말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개인의 사과 내지는 진술한 변명을 듣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여기가 지금 국정감사나 또 국정조사가 아니어서 선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활동도 국민 앞에서 진술된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국장의 메모 전달 건에 대한 소속 장관의 견해와 평가는 무언지 이 사태를 매듭짓거나 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이 위원회의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박주선 위원의 말씀대로 장관께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이 뭔지 말씀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저희 담당 국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과 언행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오늘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적절한,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박혜자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혜자 위원** 지금 검찰이 방금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정윤희 문건을 처음 보도했던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어요.

장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직.

○**박혜자 위원** 아직 보고도 안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세계일보……

언론에 대해서 주무 장관이신데요, ‘지금 현재 세계일보 앞에 수십 명의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떠 있어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장관,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검찰에서 그건 잘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그냥 검찰만 믿고 ‘언론 탄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박혜자 위원**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 파악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오늘 메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선거 때는 국민 대통합을 그렇게 외쳤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자꾸 지역 간에 분열시키고, 그래서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시키고 또 국민을 어떻게 보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립, 모든 문제가 갈등을 오히려 위에서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희가 보면서 이에 대한 착잡한 마음을 추스르기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로 통합돼서 나가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려울 터인데 자꾸 모든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정치가 가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체육국장까지도 어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것을 여야 간의 싸움, 여야 간의 대립, 모든 것을 그렇게 몰고 가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실 보다는 겉가지의 관심으로 몰고 가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장의 처신은 아주 잘못된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박혜자 위원 이제 유진룡 전 장관의 오늘 발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떠나서, 이 사건의 기본적인 본질은 저는 전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의 어떤 권력의 암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찌 보면 비참하기까지 한데요. 이 사건의 본질 뒤에는, 우리가 정말 문서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결과지에 치중하지 말고 사건의 그 기본적인 본질의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하고 있는 내용도 어찌 보면 ‘국장과 과장의 인사를 대통령이 사사로이 관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국정을 농단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제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측근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혜자 위원 저희가 지난 교문위에서 유진룡 장관과 일도 해 봤어요. 저도 유진룡 장관과 좋은 관계는 갖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떤 분인지는 위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품이나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룡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대의를 생각해서, 이쯤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김중덕 장관께서도 정말 본질을 봐 주시기 바라겠고,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문제를 지적하는 손가락 갖고, 지엽말단적인 것 갖고 자꾸 지적을 하고 손가락만 문제 삼고 그것을 비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가 본질을 보고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장관, 그렇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오늘 장관께, 정말 국정 농단이 있다면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이나 장관께서도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장관, 그렇다면 지금의 인사에 대한 개입과 농단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사심을 버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명백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그래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저는 오늘 궁금한 것은 김중 차관을 도대체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차관으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중 차관이 우리 문체부에 들어온 이후에 끊임없이 인사에 대한 논란 또 김중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김중 차관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몰고 다니는 정말 이런 각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본인께서 사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김중 차관 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각종의…… 루머라면 루머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지만 이런 인사 문제까지 실세니 비선 조직 누구하고 닿아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정말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인지, 다른 차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중 차관의 얘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풍문이 돈다라고 한다면 정말 차관께서도 본인의 어떤 행실도 보셔야 되고 또 본인이 뒤의 어떤 분들을 잡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중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께서 책임을 지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지금 그것을 답변할 위치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할 위치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확인된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답……

○박혜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확인이 되고 안 되고는 조금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요.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종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끊임 없이 제기되는 풍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문 하나까지도 참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도 정치 들어와서 정말 작은 소문 하나에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몸 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김종 차관을 둘러싼 인사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정말 본인이 진지하게 본인의 진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어찌됐든……

○위원장 설훈 자, 정리해 주시지요.

○박혜자 위원 예.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그러한 밝힌 사실을 장관께서 정말 장관의 직위를 걸고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국감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수준 높은 질의,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원에서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비쳐졌는지는 모르지만 “여야 싸움으로 물고 가야” 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을 장차관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국장의 행동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화부 실·국장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한순간에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든 국회든 우리 모두는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국장은 장관이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승마협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문체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런 것까지 시키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해 봤더니 정운회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아서 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다. 유진룡 장관은 그런데 청와대로 불려가서 문체부 국·과장은 나쁜 사람이라며 경질을 지시 받았다.” 이게 언론 보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까 유기홍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장관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 부처의 공식 조사를 무시하고 비선 라인의 말을 듣고 장관을 불러 실무 국장·과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인사 조치는 여러 가지 그간의 일들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 하나만 따로 떼 갖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저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식 라인…… 국·과장들에게 조사를 해라, 그러면 조사를 해서 갖고 온 그 정식 라인을 통한 업무 수행을 존중하지 않고 비선 라인의 말을 듣고 정식 라인을, 실무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국정 운영 방식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선수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 전화를 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징계성 좌천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실·국장이 또는 장차관들이 어떻게 부서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체부에서 그렇게 체육국장·과장을 한꺼번에 경질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전에는 그런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사 할 때는……

○도종환 위원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문체부 내외부에서도 체육계에서도 그 당시에 말도 많았었습니다.

말도 많았다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유 장관께서 그러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어떤 재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공무원임용령 45조를 보면 고위 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소 1년 이상, 3·4급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업무 파악만 하다가 또 자리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막고자 만들어진 규정이지요.

그런데 진재수 과장 같은 경우에 5개월 만에 인사 조치를 당했던 거예요. 노태강 국장도 체육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다음 보직으로 인사 조치될 때 한 달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요. 체육과장도 똑같이 한 달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임 장관께서 이미 언론에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셨다는 말을 밝히신 이상 사실은 제 답변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도종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노태강 국장의 2013년 9월 인사 조치 그 당시부터 전 1년간의 근무성적 평가등급 이것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그다음, 김종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 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각 일간지 보도 오늘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도종환 위원 전임 장관의 이야기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전임 장관께서 저에게 그렇게 평가 내리고 저를 그렇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차관님. 이 신문 기사를 접한 저희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전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이게 현 장관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전횡과 월권을 저지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우려,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이게 부처의 현실이라면 현 장관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관은 저는 자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만약에 이재만 비서관과의 사이가 언론에 나온 대로 사실이면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가만히 계세요.

차관님, 8개월이나 모신 전임 장관 고소하겠다는,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언행에 후회 오해 받을 만한 소지가 없었는지 성찰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난번 정성근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가 기정사실화되자 여당 중진 위원님께서 교육부장관후보자, 문체부장관후보자 다 동시 낙마하고 이에 따른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정회 중에 야당 위원들이 모인 위원장실에 오셔서 크게 걱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당 위원들이 ‘그러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 장관을 유임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의견이 야당 의견이고, 그래서 야당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니깐 여당 중진 위원님께서 청와대에 이런 안을 연락해 보겠다고 하였고 청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 장관께 유임해 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은 유 장관이 “조건이 하나 있다. 국·실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요구가 바로 장관 인사권을 존중해 달라는 말이었는데 체육국장·과장 인사 문제하고 또 계속 문화부에 논란이 되어 온 인사 파동들과 관련이 있는 함축된 말이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유 장관 이야기를 들은 청와대는 국·실장 인사권 요구를 하자 바로 면직 처분을 내렸어요, 후임 장관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교황 방문과 같은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저는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사실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일이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유기홍·정진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듯이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지난번 9차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제가 정윤희 쓰나미 또는 정윤희의 국정농단을 예로 들면서 상주경찰서에서 상주 춘계승마대회 점수 조작 사건을 이례적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기도 하고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1명”, 제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 지시로 하는 거다.” 이렇게 경찰이 이

야기를 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방 이후에 심판들이 경찰서에서 점수 잘못 주었다고 조사를 한 사례가 없다. 국가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윤희 게이트니 정윤희의 국정농단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거를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 상주경찰서 수사계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의 딸과 관련해 수사를 한 바가 없다. 만일 내가 심판진이나 성적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우승한 김 모 선수가 마방을 특혜 배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내사에 착수했다. 승마대회에서 3관왕이 나온 게 이례적이어서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문과 호기심이 상주 시내에 소문이 썩 퍼져서 소문을 취합해 보았는데 마방을 배정받은 것은 확인되었지만 점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사를 종결했다.” 이런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마협회에 물어봤습니다. 정윤희 씨 딸이 2위를 하고 김 모 선수가 1위를 했는데 우승과 준우승을 했습니다. 즉 정윤희 씨 딸이 준우승을 했는데 과연 국가대표가 되는 데 몇 점차가 있느냐 하면 이 점수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15점 차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선수 간의 점수 차는 435 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전에 승마협회나……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니까 안 위원님께 근거를 대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명예를 또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에게 말씀 주시길래 제가 해명을 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지…… 그리고 오늘 기사를 말씀드린 이유도 분명히 지금 다시 한 번 밝혀지지만 이게 억측이고 풍문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국이 억측·풍문·지라시, 이런 것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계속 휘둘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2일이지요, 체육국장·과장을 바꾸어서 언론의 보도 대부분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으

나 미흡해 교체되었다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윤희 씨 딸은 점수 조작 또는 심판 판정의 편파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사회에 입소해서 훈련한 문제라든지 국가대표 선발했던 과정이라든지 차근차근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풍문에 의해 가지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금 비화가 되어서 이전에는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이제 우리 문화관광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적어도 근거나 정확한 사실에 기인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계의 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대악 신고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각 체육단체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작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에 나가서 전임 장관께서 체육계의 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니요, 제가 몰랐습니다.

○서용교 위원 전임 장관께서 작년 초에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계속 체육계 비리 근절 의지를 해당 수석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급기야 7월 23일 날 국무회의석상에서 체육계 비리 근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체육계 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들이 제가 보기에 지금쯤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7개월간 거의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국가대표선수회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국가대표선수회는 대한체육회가

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체육계의 구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서 체육계 비리가 잘 척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지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고, 이제 체육계의 비리…… 작업들이 조금 진척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전문성 없이 또는 깊은 배려 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한체육회 관련 단체들의 개혁 작업을 하실 때 관광부에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실에 기반하고 더 깊은 사고를 해서 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각종 체육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승마협회 문제뿐만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나오는 것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점 고려해서 우리 체육계가 근본적인 비리들을 척결하고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서용교 위원 그리고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인사 조치의 효과 중 하나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까지 이런 적폐 척결이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는 했지만 어쨌든 부처의 책임자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은 이상 이 문제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서용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문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문체부 국장·과장의 갑작스런 발령 하나를 가지고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윤희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

통령 비선의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비선 조직에 의해 가지고 국정을 농단당했고 비선 조직에 의지를 많이 해서 헌정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있고 헌정질서가 문란한 상황이다, 이렇다면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국가공기관의 무력화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진솔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유진룡 장관 사이의 “문체부의 국장과 과장이 참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체육국장하고 과장 인사를 왜 어떤 경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우선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큰 뜻을 담은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점심시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식사하느라고 자세하게……

○박주선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자세하게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 본 바로는 하여튼 태권도 편파 판정 유서 사건 이후에 이런 체육계의 총체적인 비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이게 대통령께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또 적폐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비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하시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전임 장관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 내용이 좀 부실했고 또 비리 척결하는 내용의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가 못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제가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

은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장과 과장을 한꺼번에 돌연 인사 조치를 한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제가 어제도 사실……

○박주선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건.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답변하러 나오신 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체부에서 대한승마협회의 조사에 작년 6월 달에 착수를 했었는데 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로도 그 당시에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또 청와대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쏟아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승마협회, 승마 쪽에 비리가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에 대한 조사를 장관이 지시하셨거나 그랬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지요, 7·8월경에 승마협회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체육단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다음에 노태강 국장이 8월 22일 날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체육계의 비리를 감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8월 26일 날 문체부가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주무 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8월 29일 날 청와대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이 경질이 돼요. 그리고 9월 2일 날, 다시 말하면 스포츠비전 2018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또 체육단체 특별감사 돌입한 지 6일 만에 체육국장하고 과장이 동시에 경질이 됩니다.

이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주무 국장이, 주무 과장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경질했을 때에는 상부 지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아까도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고……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능해서 그냥 교체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보기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그때 한 달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

○박주선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스포츠 비전까지 발표를 하고 특별감사에 돌입을 했는데 불과 6일 만에 주무 국·과장을 동시에 교체를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통념에 비쳐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께서 속 시원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책임도 있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 진실을 말할 못 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어떻게 체육국장이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은 여야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야 한다.” 그런 쪽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체육국장은 장관에게 소상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진실과 관련된 보충·보완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정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유진룡 장관이, 대통령 말씀을 듣고서 만일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듣고 있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진룡 장관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인을 했어요.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주선 위원 어떻게 장관이 국가원수인 대통령,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그런 일이 없는데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화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대화를 모르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과 장관이 나누지도 않은 대화 내용을 나눴다고 이야기할 리는 만무하지 않느냐 말

씀이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각 부처의 일개 국·과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힐난이나 또는 고과평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세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다면 유진룡 장관이 언론에 발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맺어 보면 대통령은 분명히 유진룡 장관에게 문체부의 국장하고 과장을 지칭하면서 ‘참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압박을 받아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야 지금 감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대통령께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보고까지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지요.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항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항명한 거나 다름없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인사를 바로 문체부장관이 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겠느냐? 대통령을 움직이는 비선 실세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받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비리 척결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제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면 그분이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지요. 해 놓고 나와 가지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 유진룡 장관의 그 언행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행으로 보건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체육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를 해요. 그것이 2013년 9월 26일입니다. 아니, 8월 26일입니다. 만 6일 만에 체육국장하고 체육과장을 경질을 합니다.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찰을 하게 되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체육 관련 부처가 다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무 과장을, 주무 국장을 경질하는 그 배경에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에 착수한 지 며칠 됐다고 국장과 과장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해서 바꿨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장관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게 개선……

○박주선 위원 그리고 경질을 하게 되면 바로 후임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산하단체로 보내면서 한 달 정도 대기발령을 시켜 놓고, 이걸 뭇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사 조치를 안 해도 될 사항을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 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와 교체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유진룡 장관과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한선교 위원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사자인 국장이나 과장을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 가지고……

○한선교 위원 아니, 마이크 꺼지고 이게 뭐……

○박주선 위원 확실히 답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라는 국장이 나온다 해 놓고 나오

지도 않아 버리고, 여기 출장 온다고 복명해 놓고 과장은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오지도 않고, 체육국장은 답변하는 장차관에게 이걸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되고 은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취지로 쪽지를 보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위원장 설훈 정리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터뜨려야 할 고름 덩어리를 터뜨리지 않고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가 끓어 터져 가지고 질질 뒤통 다 흘러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훈 박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문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국장하고 과장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그 인사 조치한 사유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윤 위원님, 아까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 바로 그 체육계 비리 척결 또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실히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갖고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두 분 사이에 그야말로, 전임 장관이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임 장관의 그건 그분의 말씀이신 거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정작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윤재옥 위원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또 부처 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평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업무 추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음해로 인해서 교체가 됐다면 이걸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승마협회 조사를 제대로 또는 어떤 특정 인물의 의도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인사 조치했다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증언을 보면 그 당시 체육계 비리 척결이

라는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의 현안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무 국장·과장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유진룡 장관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항을 대통령께서 업무에 참고하라고 언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인사를 하고는 대통령께서 통상적으로, 제가 그 뒷말은 보도에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이 안 됩니까라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 인사 조치를 하라는 말은 없어요, 내용에.

하여튼 평가가 좋지 않더라는 언급을 했다고 유진룡 전 장관이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통상적으로 대통령께서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 장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제가 보건대 대통령께서 체육계의 비리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주무 장관한테 만약에 말씀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언급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하셨을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승마협회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국장·과장을 교체하라고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문체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새로 일신하고 전체적인 공직 기강이라든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런 워크숍을 했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워크숍은 아직 안 했고요. 그간에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실·국장회의, 또 실장끼리만 따로 하는 회의, 차관들과 함께하는 작은 회의, 이런 소규모 회의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장들이나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사실 장관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각 부별로 돌아가면서, 저는 매번, 매주 갑니다만 그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 오겠지요. 그래서 같이 산행을 하면서 그런저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듣고 있고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들만 모아서 또 따로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체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재옥 위원 그 보류 사유가, 오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대정부질문 이후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서 그게 보류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결과가 장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은.

○윤재옥 위원 그래서 한국체육대학 총장 선임 문제는, 제 발언도 추론일 수는 있습니다. 장관이 그 당시 공백인 상태에서 차관이 한체대 총장이 되기 위해서 사표를 내서 그 총장 선거에 출마한 그 사실이 저는 총장으로 선임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 사유가 임명 보류 사유가 될지언정 대정부질문 이후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그 사유를 가지고 총장 임명을 보류한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부의 입장입니다마는 하여간 그러한 것이 문제가 두드러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김종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한승마협회 살생부’라는 서류를 본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서류가 계속 언론의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서류의 출처라든지 그 서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난 4월에 안민석 위원께서 대정부질문 때 처음 살생부라고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놓았는데, 그 서류는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서류의 출처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서류가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서류를 그때 승마인 한 사람이 써 주었다는 걸로 안민석 위원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 문체부가 인사 외압설이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하면 BH에서 검증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윤재옥 위원** 검증해서 여러 가지 평판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적격하다고 통보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사 외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BH에서 걸러 주라고 그 기능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해서 부처마다 또 인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것들을 외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당연히 검증의 절차이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의, 그동안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BH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BH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외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요.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재옥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윤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김종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유은혜 위원** 우상일 국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일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3월 2일 자로……

○**유은혜 위원** 올해 3월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유은혜 위원** 우상일 국장께서 차관님께서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런 쪽지를 전해 주신 것은,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전혀 나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면 차관님의 무관함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맞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우 국장님께서 그런 쪽지를 써 주신 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사실이 있거나 진실이 드러나면 뭔가 차관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드러날까 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아닙니까.

○**유은혜 위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제 밑에 있는 실·국장의 처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이게 단순한 오늘의 실수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단적으로 오늘 드러난 거고요, 그만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정윤희 씨와 문고리 3인방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와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경질, 이 문제에 청와대가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고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의 그 말씀까지 보도가 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관님은 나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우 국장님은 “여야 싸움으로 물고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가 차관님 하고 이게 관계가 있고 드러나면 안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넘어가야 된다, 은폐해야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모면하고 넘어가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평상시에 일 처리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백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감사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역 저는 10월 29일 날 부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마협회 조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정확한 조사 날짜는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관장 편파 판정 유서 나오고 그 시기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문체부에서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시작한 게 8월 26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실제 특별감사는 그런데 그전부터도 이미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투서와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 6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이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6월에 착수를 했으면 그 조사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 국장한테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파악

한 내용으로는 보고됐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은혜 위원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예.

○유은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에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됐고 7·8월경에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청와대에 대한승마협회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예.

○유은혜 위원 그렇다면 8월 26일 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시작했는데 이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12월 24일 날 체육단체 특별감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9월 2일 날 문체부 국·과장이 경질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체육계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된 체육계의 전면적인 비리 척결 이런 것에 국·과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경질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태권도 관장 편파 판정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서와 민원이……

○유은혜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역 제가 그러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1월 전남승마협회 부회장, 3월 전북승마협회 회장 이분들이 다 압력받고 사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센터의 특별조사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지난 4월 14일인가요, 이 승마협회 논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하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역 예, 브리핑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통상 이런 모든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 차관님께서 직접 브리핑하고 기자회견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일반적으로, 그때는 안민석 위원께서 대정부질문을 총리께 하신 것입니다. 총리께 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4월 초라서 새로 온 신임 국장이……

○**유은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신임 국장이 모르기 때문에 장관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발표했던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유독 차관님께서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한 것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겸 말씀드리면, 오늘 제기된 이 문제의 본질은 승마협회 내지는 정윤희 씨 딸의 자질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정부 이제 임기 2년이구요, 내년이면 3년 차 들어가고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여야 모든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부 비선 라인의 국정 개입으로, 그 의혹으로 인해서 매우 불신을 받게 되고 있고 그러면 남은 앞으로의 3년 임기를 어떻게 잘 꾸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의혹 받고 불신 받으면서?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지금 장관님이나 저희들이나 공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보도된 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그런 의문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는 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아까도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그것은 장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지금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을 법사위에서 출석하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께서도 4시부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석을 요청하는데, 두 분에 대해서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제 차례 아니면 다 하시고……

○**위원장 설훈** 대체로 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김태년 위원** 김태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건이 아주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급기야 문체부 인사 관련한 문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장관께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이 진실하냐 안하냐 이것을 판단할 때 큰 기준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장관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진실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진룡 장관한테 이른바 노국장과 진과장을 찍어서 나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구에게인가 보고를 받았건 누구에게인가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통상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국·과장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통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서실에서 공식 업무 보고를 통해서 승마협회와 관련한 보고를 했으면 모를까……

그런데 국정 업무라고 하는 게, 국정이라는 게 다루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또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한가하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누군가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분, 친밀한 사람이 거의 사적 영역에서 뒷담화하듯이 애

기하신 것 아닌가, 그것을 유진룡 장관한테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보여지는데요.

오늘 장관 답변이나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질의 내용으로 봤을 때 노 모 국장, 진 모 과장의 이 전격적 인사는 유진룡 장관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다라는 것은 밝혀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해서, 이른바 체육계의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해서 담당 국·과장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렇게 지시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체육계 비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보셨고 그게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정도 뭉개고 있어서 생긴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장과 과장을 찍어서 인사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 문제가 아니고 장관을 경질하셨겠지요.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하셨겠지 국·과장을 찍어 가지고 인사하라, 나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이유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듯이 청와대의 특별한 하명, 승마협회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한 지침이 있었는데 그 의도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3년 4월에 전국승마대회가 있었는데 그 승마대회가 끝나자마자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심판들을 다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김종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캠프 출신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차관 되실 때 누가 추천했다고 하던가요? 보통 알잖아요, 누가 추천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제가 모르고 체육인이 추천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체육인께서 추천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 정도 고위 정무직, 차관으로 임명을 받으셨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추천했다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냥 계속 관직에 계셨다고 한다면, 계속 공무원이셨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 정무직이 되셨는데 누가 추천한지를 몰랐던 분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공무원, 계속 관료로 계신 분은 그럴 수도 있었는데, 본인 표현대로 ‘어당’이지 않아요. 아, ‘어공’, 어찌다 공무원되신 것 아닙니까, 교수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밖에 계시다가 이렇게 고위직으로 들어오실 때는 누가 추천했다 이것은 아는 거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차라리 말할 수 없다 그러세요.

이제만 비서관, 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이제만 비서관, 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모릅니다.

○김태년 위원 그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딱 한 번 인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김기춘 실장은 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업무 때문에 봤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전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태년 위원 부친이 뭐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부친,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돌아가셨습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께 질의합니다.

차관요, 차관님이 먼저 답변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평소에 청와대를 자주 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존경하는 여당의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 차관께서 청와대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박혜자 위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김태년 위원** 청와대에서…… 김종 차관한테 업무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청와대 핑계를 자주 낸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지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봤어요? 엇그제 상임위에서 하더만.

○**김태년 위원** 여당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깐요.

○**염동열 위원**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난번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보고도 안 하나?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

○**김태년 위원** 안 파세요, 청와대 안 팔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아까 차관께서 ‘이 비서관과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장관께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김태년 위원** 오늘 상임위가 열리면 주요 현안이 뭔지 그것은 알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보도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은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 이게 정상인 거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는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4월에 대정부질문 한 게 있어요. 이른바 살생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안민석 위원이 문체부한테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그 메모를 드렸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이거. 주었대요, 문체부에 이것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해 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부처에서 아무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안민석 위원은 문체부에 주었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담당 국장하고 다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합니다.

○**김태년 위원** 박원오 전무가 체육과장한테 주었대요, 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체육과장이요?

○**김태년 위원** 예, 박원오 전무라는 분에게 작성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은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또는 그분의 필적하고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타이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기된 거거든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확인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체육과장한테 주었다는대요.

그다음에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장관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른바 종합감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승마협회의 특별조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감사 때문에 노모 국장과 진 과장이 경질된 게 아니고, 인사가 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승마협회의 조사, 이 건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분명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신성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전 회의 말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여당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해당 위원이 안 계시는데, 안민석 위원의 오전 발언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동료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거두절미 또는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동료 위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적인 내용…… 모욕적이기까지 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 다음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님께 분명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저

회 당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안 위원에게 저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반박하지 않았습시다만 굉장히 틀리게 이른바 승마협회의 박 모 전무가 작성했다는 그 메모에 나온 내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바로 등치시킨 결과는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에 보면 “장기적으로 시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말씀은 아시다시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단체장을 하거나 또 단체를 장기 운영하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갖다가 꼭 그 메모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발언한 양 등치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도 좀 무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분명한 석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침 신문도 유심히 봤는데 하나가운데 고리가 빠졌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의 발언도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까지는 인정…… 둘만의 대화니까 제3자는 모르지만 한쪽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바로 승마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나 비선 실세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라고 그냥 단정을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국장이나 과장을 지명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드물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냐?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왜 저렇게 체육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늦어지지?’ 하고 알아보니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그래서 장관과 대면보고를 하는 사이에 ‘국장하고 과장이 일을 안 하고 참 나쁜 사람이더라. 그런 사

람은 빨리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아보세요’라고 했다면…… 더욱 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이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역사적 진실로 드러날 거고 또 법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검찰 수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봐야지 단정을 하고 예단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의 추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봐야지 지금 언론이나…… 이 사안의 접근이 저는 대단히 예단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파악하신 바가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국장과 과장의 전격적인 경질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한 것도 실제로다가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원래 지적하신 비정상의 정상화 또 적폐 해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그것은 태권도 관장의 편파 판정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민원과 투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정 안 되겠으니까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셨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이게 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두 분 사이의 얘기인데 어느 한쪽의 말만 이것이…… 전임 장관이 하신 말씀이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신성범 위원 해당 담당 국장과 과장은,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회에 출석할 의지가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국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 통화가 아마…… 담당 국장도 아마 그 사람들하고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면 문체부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라도 그 사람 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라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 일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열리는 첫날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고 또 오늘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끝나는 대로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 차관께서 “본인을 누가 차관으로 추천했는지 모른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김태년 위원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로 모르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모릅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 정말 진실하지 않은 답변이네요. 그것은 아마 여당 위원님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차관까지 하는데 자기를 추천한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고요, 그거 진실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겨레신문에서 정윤희 씨, 승마협회 건, 그다음에 유진룡 장관한테 두 국·과장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지적사항, 이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언론의 청와대 확인 요청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물어봐라, 문체부에 확인하라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사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어요.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던 말입니다. 이쯤 됐으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해명을 문체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와 관련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메모로는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이것과 관련된 발표를 하셨다고 쪽지를 받았습시다.

○위원장 설훈 뭐로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공무원 문제를 지적받아서 유진룡 전 장관에게 적폐 해소 속도를 내 달라고 지적했고, 보고서가 부실했고, 그래서 적폐 해소가 안 되어서 국·과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여기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재정 위원 보고서가 있었다는 말이네, 보고서가 있었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 아니요, 보도……

○서용고 위원 보도예요. 제가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보도 자료의 대부분은 그렇게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MBN 뉴스 속보로다가 그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금방 그 말씀은 보도 내용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워딩하셨는지가 드러날 테니까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금방 읽으신 것처럼 “보고서가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문화부가 이제까지 거짓말하신 겁니다. 보고서 없다고 그동안 계속하신 거잖아요. 보고서 있으면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는……

○배재정 위원 아니,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금방 읽으신 것에 의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보고서가 부실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워딩은 확인이 될 테고요. 만약에 그 워딩대로 보고서를 언급하셨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지금까지 아랫사람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전에도 우 국장이 보고드렸습시다만 “보고서는 없고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재정 위원 보고……

그래서……

○도종환 위원 아니, 보고서가 부실했다면서요?

○배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 국장님 뭐 합니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장관님, 제 질문은 명료합니다. 이제까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고서가 있는 거로 드러나요. 그러면 문화부,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것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배재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관님도 속으신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어떻게 책임질지 그것 말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께서 세계일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모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세계일보가 어젯밤 긴급기자총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세계일보는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기자총회를 하고 거부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게 오늘 오후 사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터 문 내리고 기자들 전부 다 편집국에 집결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 장관께서 그런 것을 모르고 상임위에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장관님 개인적으로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보도 못 보실 수 있는데, 문화부에서 장관님을 어떻게 보좌하는 겁니까? 문화부의 실·국장님들, 장관님을 어떻게 보좌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도에 의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게 풍문이든 아니든 주무 장관께서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 장관님한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혹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동향이 있다, 이런 것을 미리 보고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지금 1차관님 안 계시는데 2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아마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배재정 위원 문화부 직원 분들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죄송합니다.

○배재정 위원 상임위가 열리면 그날 아침 보도의 경우에는 일부 놓칠 수도 있고 준비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후 시간 아닙니까? 오후 시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장관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죄송합니다.

○배재정 위원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거나 장관님한테 제대로 보좌 안 하는 거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아닙니까.

○배재정 위원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요.

한 가지 더 황우여 사회부총리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교육부장관이셨으면 오늘 이렇게 곤혹스럽게 계속 앉아 계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부총리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 분야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도 저는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 이렇게 많은 질의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황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답변 먼저 해 주시고 황 부총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보도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그것과 관련되어 갖고 제대로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시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재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이 과연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사실 확인 하나만 더……

○**배재정 위원** 부총리님 답변 듣고……

○**위원장 설훈** 부총리님 답변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주무 장관께서 적절히 잘 파악하시고 처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필요시에는 제가 또 함께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시고 또 처리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은혜 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설훈** 유은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김태년 위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다음에 하십시오.

○**유은혜 위원** 간단히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속보에도 안 뜨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MBN 뉴스에 떴다고 그러는데요.

○**유은혜 위원** MBN 뉴스에 떴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포털에는 아직 안 떠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금방 이렇게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세계일보 이런…… 어제부터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 즉각적으로 보고 안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장관님, 앞으로도 일하시는 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일 못 하십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님, 앞서 6월에 승마협회 조사하고, 7·8월경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서가 있었는지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조차도 모르

고 있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누구에게 보고서가 없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국장과 차관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차관님은 모르셨고,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보고서가 미진해서 경질을 그렇게 지시하셨거나 하여튼 그런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보고서가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국장님 누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당시에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몇 월 달 말씀이신지……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7·8월에 보고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노태강 국장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경질된 국장·과장이 그 당시에 계셨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유은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국장님, 차관님, 장관님 다 보고서가 있었는지, 보고가 청와대에 어떻게 됐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시고, 확인도 안 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유은혜 위원**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실이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보고서가 있었다면 반드시 보고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참고로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한 거로 나오고요. 워딩에 “보고서”라는 말이 나

옵니다.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시고……

○김태년 위원 먼저……

○위원장 설훈 박대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지금 논란 중인 문제를 상식적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장관님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혹은 또 장관님을 모시던 어떤 측근이나 보좌관 출신들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또 아니면 국회 교문위원장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국회 교문위원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혹시 본인의 딸이 아니고 옆의 보좌관이든 모시는 측근의 딸이 또 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승마협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웅성거리겠지요, 호사가들은. 재 장관 딸이라더라, 실력도 없는 게 됐다더라, 재 위원장 딸이라더라, 재 의원 딸이라더라, 의원 보좌관 딸이라더라, 장관 보좌관 딸이라더라, 실력도 없다더라, 특혜라더라, 입김에 됐다더라, 좌지우지했다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 딸이 당당한 실력으로 합법적이고 근거 있는, 객관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거둬 내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7년 동안 64차례의 1위를 하면서…… 그리고 금메달을 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특혜 시비와 모든 논란을, 호사가들이 말하는 그런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해당 선수의 실력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실력이 입증되기 전에, 실력을 파악하기 전에 인격살인부터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유망주를. 특혜를 받은, 실력이 모자라는 부정 선수인 것처럼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무엇으로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도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게 말이지요, 지금 이 논쟁이 문체부 국·과장을 교체하는 문제,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보장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식 보고라인을 통해서 실상을 파악하시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 이 문제는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없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의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없다고 봅니다.

○박대출 위원 비선 개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식 보고라인을 거쳤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를 지시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모든 억지 논란이, 허황된 비선 실세 논란,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공세는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자, 그러면 그 논리로 한번 제가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시를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안 했으면 유진룡 장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지시를 하셨다면 유진룡 장관은 일단 맞는 겁니다.

그러면 유진룡 장관이 맞다면, 그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지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해왔나? 체육계 비리가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고 이것을 반드시 척결할 책임자가 필요하다, 지금의 국·과장은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맞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7월 23일, 작년 문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포츠 경기 불공정, 불공정한 심판 판정, 즉 승부 조작 및 금품 수수, 프로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 브로커 간의 금품 수수,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 문제, 서울시 태권도협회 주관 전국체전 대표선발전에서 불공정 판정으로 패한 선수의 지도자, 선수의 아버지 자살, 대한농구연맹 관계자 학부모 등 승부 조작, 금품 수수 등 혐의 적발, 프로축구·프로배구·프로야구·프로농구 등 유명 선수 및 감독 연루 이런 광범위한 비리, 거기다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및 선수 스카우트 비리, 체육특기자 선발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배구 야구 축구 등 다수, 운동부 운영비 유용, 고대 축구감독 등 학부형 납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 및 금품 갈취, 러시아 감독 선수 폭행 및 금품 갈취, 역도코치 성희롱, 장애인체육회 2012년도, 이런 사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받은 국정책임자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만일에 이 내용을 다 보고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라면 그것과 관련된 조속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엄중한 사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듣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그 경로를 따라가 보시지요. 비선 실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공식 라인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공식 라인의 보고로 들어가 보십시오. 공식 라인으로 공식 보고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한다면 비선 실세 논란은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식 라인 등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박대출 위원 대통령이 지금 이 문화체육부의

체육계 비리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공식 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장관을 통한 보고와 그다음에 청와대비서실을 통한 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공식 라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문화체육부에서 보고를 했을 경우, 그것은 유진룡 전 장관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유진룡 장관도 경질이 되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청와대 자체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와대 자체보고도 두 가지가 있었지요? 개별 수석실에서 했을 수 있고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했을 수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부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두 가지 유통경로,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로는 유진룡 전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유진룡 전 장관이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유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유 장관이 엄중 사안인 체육계 내부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보고까지도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대출 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경질하게 된다면? 그 과정만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논란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내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이런 헛된 정치적 공세는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지고 어떤 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어떤 분의 따님이 혹은 아드님이 승마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상관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계에서 엄정한 심판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단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형태로 이게 논란이 진전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은 보고서가 실제로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보고했던 보고서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여부였고, 그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부실한 보고서였는지 아니면 정확한 보고서였는지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이후 처리된 내용이 정실의 인사가 개입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였는지 이것을 판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7월 23일 날 유진룡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비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당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 과정에 진척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 유진룡 장관은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 또 보십시오.

“대통령은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담당 간부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종합하면, 해석하면 7월 23일 날 유진룡 장관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올라온 보고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보고서의 내용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유진룡 장관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다시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

더라도 7월 23일 날 유진룡 장관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은 보고와는 비교를 봤을 때 이 보고서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는 거니까요, 보고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고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이 보고서가 부실했는지 그다음 조치들이 정말 부실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사에 개입한 어떤 다른 흔적이 여기에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서 존재를 확인해 주었는데 그것 없다고 하시거나 안 내놓으시면 계속해서 의혹만 증폭되어 갈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이상한 보고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민 대변인도 밝히셨다시피 국무회의에서 운영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 그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보면 그것 외에 뭔가 숨겨둔 보고서를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없는데……

○정진후 위원 아니, 6월 달에 문체부가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했는데 조사하고 그냥 딱 입 씻고 맙니까? 정부가 움직여서 체육 관련 단체를 조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별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까? 이것을 세상에 누구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6월 달에 문체부에서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문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서 장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그것 믿으시겠어요?

청와대에 7월 23일 날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6월 달에 승마협회 조사했던 이것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6월 달에 한 보고서가 일체 없다니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단 그것을 조사했으면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판단컨대는 그것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이때 보고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승마협회를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7월 23일 날 바로 보고된 그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 공식 보고서가 있고 비공식 보고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를테면 담당자가 이 공식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메모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메모일 뿐인 거지……

○정진후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장관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문체부에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으면, 그냥 가서 쓱 한번 둘러보고 나온 게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그 움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결과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와도 출장복 명서를 예전에도 썼는데 어떤 처리를 했다……

그런데 조사를 착수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없 다니요? 이것은 문체부가 장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조사보고서가 없다면,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가 없다면 장관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체부 직원들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뭘 하셨어요? 가서 사무실 한번 둘러보고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 구경이라도 하고 왔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을 장관님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너무 답답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의 자제분이 어떤 승마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혹은 그쪽으로 귀담아듣지 마시고, 이 사안을 조사했으면 문체부는 어떤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제공해 드리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대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세요. 저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설훈 자료제출 얘기하십시오.

○배재정 위원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해소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브리핑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그게 국무회의 보고든 어쨌든간에 체육단체 운영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설훈 이에리사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리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2분만 하겠습니다.

많은 똑같은 얘기들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육계가 거둬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금년 초 그리고 금년 2월 소치 올림픽…… 그런데 처음 얘기할 때는 태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요. 태권도에 자식이 편파 판정으로 선발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이전에 제자가 안 되고 아들이 안 되는 것 2개가 겹침으로써 자살한 사건, 그것으로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2월 소치 올림픽 때 안현수 선수가 매달을 막 따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서운해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협회 내에 있는 파벌이라든지 체육계의 부조리를,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쇄신을 해야 되겠다, 거둬야 되겠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이 되면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저는 장관님 오셨을 때,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와 체육계의 그 고리라는 것은 참 오랫동안 같이 공존해 왔지요. 한집안이나 같이, 제가 늘 큰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사실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체육계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국가대표선수회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가라는 것은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사실은 투명하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을 다 갖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공정위 설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하시겠다고 그랬고.

모든 것이,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끼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박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질책을 받게 되고 사람도 인사를 하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저는 그냥 우리 체육계가, 정말 몇 시간째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체육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아는 사람끼리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체육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번 시점에 중지부를 찍고 공정위가 설립되어서 빨리빨리 체육계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저도 지난번에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체육계에서 체육계의 비리를 없앤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요, 저희 문체부가 사법권도 없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어려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에리사 위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체육계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대단히 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인들이 또 기대를 했고.

그런데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차관 또는 장관님께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감사를 할 거냐? 빨리 마무리 지어서 체육인들을 좀 편안하게 해 주

야 된다’라고 했듯이 시간은 길었지만 결과물은 너무 없었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미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빨리빨리 이것이 좀 수습이 되게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에리사 위원 물론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 장시간 체육계가 거론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현안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김종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에리사 위원 근 1년 이상 되시면서 저하고 국립체육박물관에 대해서 수십 차례 논의가 있었지요. 차관이 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국정감사 때인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보다도 모든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차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박물관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년째 그것을 해 오면서 박물관이 작년엔 누락됐고 금년에 누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기재부와 협의 단계에서도 분명히 같이 협의해서 예산에 포함되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에리사 위원 지금 사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어서 왔을 때의 사명감이 무엇인가, 저는 체육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의도에 왔을 때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합 나가서 죽은 임원·선수 유공자도 만들어야 되겠고, 국민체육관 해야 되겠고, 복지법 해야 되겠고, 스포츠공정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왔습니다.

차관은 체육 차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 차관인지 모르지만. 체육을 위해서 해 놓은 업적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공식적인 얘기…… ‘체육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었나?’라고 제가 묻고 싶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

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체육을 담당하는 차관이 말한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끄럽지만 국회의원을 가지고 우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서용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장관님, 지금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이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은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8월 21일 유진룡 장관 대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하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이 보고서는 국무회의 때 7월 23일 날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8월 21일 날 보고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광부에서는 보고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8월 21일 날 대면보고는, 혹시 8월 22일 ‘스포츠비전 2018’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그 관련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그 정확한 관계를 찾아보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체육단체 운영비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7월 23일 보고서가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지금 자꾸 8월 21일 보고서와, 체육단체 비리·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헛갈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유진룡 장관께서

그다음 인사를 단행하셨지요? 박위진 국장님과 김 모 과장님을 임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오늘 언론에서 비쳐지는 문제면 당시에 그분 성격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오늘 언론에는 제가 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지요.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경질되고 난 다음에 분풀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보면 대부분 풍문이고 억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까 말씀대로 사실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되는데 약간 어설픈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꼭 각종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사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증된 게 대부분 다 틀려요, 제기됐던 문제들이. 특별감사부터 경찰 수사까지, 그다음에 성적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장관님, 2주 전부터 연합뉴스 사내 게시판에 무슨 이야기가 도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모르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유진룡 장관님에 관한 내용이 돌아요. 저는 풍문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국이, 정운회 씨부터 유진룡 장관까지 그런 각종 일들이라는 게 우리 정책이 보다 투명해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본적인 토양들이 좀 불명확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음해라든지 제가 보기에 억측, 하다못해 지라시가 정국을 주도하는 형태이고 연일 언론을 장악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스포츠계 비리를 척결하고 또 올바른 문화융성의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면 이번…… 오늘 보십시오. 오늘 법안 심사 의결하러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딱 문제 논의하고 있어요. 국가의 에너지가 딱 데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

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각 부처가 국정 운영의 투명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그 밑바탕에는 전문성이라든지 현실에 기초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것 이야기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위원님이 해 주신 너무 아픈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심해서 그렇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예, 정진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제가 지금 금방, 1분도 안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몇 초 전에 7월 23일자 문체부 명의로 나온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 이 자료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내용 없어요, 대한승마협회. 제가 금방 뒤적이면서…… 6쪽짜리입니다, 6쪽짜리. 6쪽짜리 어디에도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그것 왜 안 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후 위원 만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저는요, 뭐 구구한 억측이다…… 저는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단정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문체부에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무엇인가를 남겼을 것이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7월 23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3일 날 이 자료에는 대한승마협회와 관련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서 부실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8월 21일 날 장관 대면보고를 통해서 지적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정진후 위원 그래서 8월 26일 월요일 날 문체부가 체육단체 특별감사에 돌입했습니다, 121일 동안.

그런데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3일 후 청와대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이 경질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또 3일 후에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경질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답변 내용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상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문체부가 체육단체 특별감사에 돌입해서 121일 동안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취했거나 이래야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특별감사에 돌입하고 나서 3일 후에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경질됐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문체부 체육국장과 과장이 경질됐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거나 혹은 6월 달에 조사했던 대한승마협회 결과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했던 문체부의 대한승마협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것이 정실이 개입된 인사인지 아니면 문체부가 정상적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인사 조치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그 어떤 단정이나 추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계속해서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출한 자료 역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들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문제가 커지고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지금 장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합리성에 결여된 무슨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정진후 위원 지금 장관님이 대답을 못 하실 정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

○정진후 위원 아니, 왜,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두 분의……

○정진후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조사한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조사 결과에 충실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이 그런 부분을 미진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는지 이게 밝혀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월 23일자 보고라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정 위원님, 이것의 핵심은 그 두 사람이 인사 조치 당한 것이 왜 인사 조치 당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인사 조치 당한 내용이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보고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보고서를 자꾸만……

○정진후 위원 아니,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 사람들의 인사 조치하고 상관없는 보고서를 자꾸만 내놓으라고 그러시니까……

○정진후 위원 인사 조치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왜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장관께서는…… 장관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인사권 행사하시려면, 체육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한 일주일 후에 어떤 내용인지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

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조건 대통령 지시만 받아서 인사를 한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면 그 감사의 결과, 최소한도 중간 과정 정도는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해야지, 그래야지 정당하다고,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믿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 조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 장관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 가지고 유 장관이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 그게 과연 소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사 조치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그것이 자기 소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을 바꾸는 거지요.

○정진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은 영원히 부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재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리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설훈 예, 박대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 모두에서 정리한 게 있었지요? 대통령의 판단이 모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했느냐의 부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대출 위원 그 사이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일부 서용교 위원이 소개했지만 그 뒷부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이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받았다.”

무슨 얘기냐? 민정수석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던 공식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에서 확인을 했고, 오늘 그 비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브리핑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맞습니다.

○서용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서용교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용교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연합뉴스 사내 게시판이 아니고 모 언론사 게시판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오늘 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체육국장의 메모지 사건,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장관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우여 장관님, 김중덕 장관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정진후 한선교

○청가 위원(1인)

유인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진대
전문위원	김한근
전문위원	박용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황우여		
차관	김신호		
기획조정실장	박백범		
창의인재정책관	박제윤		
학생복지안전관	이진석		
대학정책관	박춘란		
지방교육지원국장	박용수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중덕		
제1차관	김희범		
제2차관	김종근		
기획조정실장	송수근		
정책기획관	황성운		
관광정책관	김철민		
체육정책관	우상일		

○출석 위원(26인)

강은희	김태년	김희선	도종환
박대출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용교	설훈
신성범	신의진	안민석	안홍준
염동열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